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도 가평군의
지명과 행정구역 변천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강 지 현

경기도 가평군의
지명과 행정구역 변천

양 보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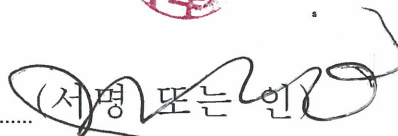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강 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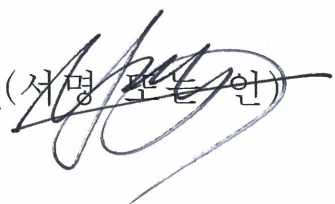
인 준 서

강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정재준 (서명  인)

심사위원 이재원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양보경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 문 초 록

지명은 지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지명 유래, 지명 변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지명은 한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지역의 지역성, 특성을 보여주는 만큼, 지역 지자체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만큼 대부분 전국 혹은 도(道) 단위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 단위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명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 단위보다 각 도시, 촌락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리지와 지도 속에 담긴 내용을 한국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며,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평군은 조선시대에 중앙집권적 정치제도 하에 농업 중심 사회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철도·댐 등 근대 산업시설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남면 폐지, 설악면 편입과 같은 행정구역이 변화되고, 호명굴과 청평호 같은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국가 행정에 지방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지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사료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2021년까지 가평군 사료를 조사하여 경기도 가평군의 지명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가평군 지명에는 당대 사람들의 자연관과 함께 지리 인식 체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읍치를 중심으로 방위에 따라 면리의 지명이 결정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촌락의 분화로 면리제가 정비되어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 서면이 내서면과 외서면으로, 북면이 하북면과 상북면으로 분리되었다.

19세기 후반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가평군의 존폐가 결정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과 1915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평군의 많은 면과 동·리가 통합되었다.

1939년에 개통된 경춘선과 1943년에 완공된 청평댐은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42년 10월 1일에 남면은 가평면과 외서면에 나누어 편입되고 폐지되었고, 양평군 설악면은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구역과 지명 개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변경하거나, 일본식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가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을 지도화하였다.

또한, 지명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역지와 지리지에 나타난 가평군 지명 오류를 수정하였다. 우리나라 지명연구는 전국 단위 혹은 도(道) 단위로 진행되어 시대별로 대표되는 고지도와 지리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료를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선행 연구의 오류가 후속 연구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과 변화에 대한 지명 연구가 이루어져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지명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평군 지명의 시기별 지명 변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초자료이다. 향후 가평군의 지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유 지명 유래 등 연구 범위를 다양한 주제와 연계하여 확장한다면 가평군 지명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명, 지명 데이터베이스, 행정구역, HGIS, 가평군, 경기도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4
1) 국내 지명 연구동향	4
2) 가평군 지명 연구동향	6
3. 연구 방법	7
1)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7
2)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7
(1) 행정지명 데이터베이스	7
(2)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	8
3)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지도화	8
II. 가평군의 행정지명	11
1.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행정지명	11
2. 가평군의 행정지명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13
1) 18세기 ~ 19세기의 행정지명	17
2) 19세기 후반 ~ 일제강점기의 행정지명	21
3) 광복 ~ 2021년의 행정지명	24

Ⅲ. 가평군의 자연지명	26
1. 가평군 자연지명의 분류와 분포	27
2. 가평군의 자연지명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29
1) 조선시대의 자연지명	33
2) 일제강점기 ~ 2021년의 자연지명	34
3. 지역의 정체성과 자연지명	35
1) 화악산 :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35
2) 보납산 : 변화하는 정체성	38
Ⅳ. 조선 ~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	40
1. 18세기 ~ 19세기	40
1) 가평군의 면(面)지명	40
2) 인구증가와 면(面) 증가	41
3) 지도에서 지명 표기 축약	44
2. 19세기 후반 ~ 일제강점기	47
1) 19세기 후반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가평군	47
2)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가평군	48
3)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평군	49
(1) 경춘선 개통과 지명의 생성	49
(2) 청평댐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및 지명 변화	51
3. 광복 ~ 2021년	53
1) 1960 ~ 1970년대 행정구역 변화	53
2) 지방자치제 시대의 지명 개정	55
(1) 청평면	55
(2) 연인산	56

3) 일본식 지명 정비의 명암	57
(1) 조종면	57
(2) 원흥리	58
(3) 운악리	59
4.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	60

V.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가평군 행정구역 변천의 지도화

1. 조선시대 가평군 행정구역	63
1) 1760년 가평군 행정구역	63
2) 1789년 가평군 행정구역	64
3) 1871년 가평군 행정구역	65
4) 1899년 가평군 행정구역	66
2. 일제강점기 가평군 행정구역	67
1) 1914년 가평군 행정구역	67
2) 1915년 가평군 행정구역	68
3) 1938년 가평군 행정구역	69
4) 1942년 가평군 행정구역	70
3. 광복 ~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71
1) 1963년 가평군 행정구역	71
2) 1973년 가평군 행정구역	72
3) 2004년 가평군 행정구역	73
4) 2015년 가평군 행정구역	74
5) 2016년 가평군 행정구역	75
6)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76

VI. 결론7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가평군 지명 분석에 사용한 자료	9
<표 2> 가평군 자연지명 분포	28
<표 3> 조선시대 가평군 자연지명	29
<표 4> 일제강점기 ~ 2021년 가평군 자연지명	30
<표 5> 조선후기 지리지·지도에 기록된 가평의 유형별 지명 비율	33
<표 6> 18세기 호(戶) 변화	42
<표 7> 18세기 중엽 가평군 인구수	42
<표 8> 『京畿邑誌』 조종상면 호(戶)	58

그림 목 차

[그림 1] 가평군 읍·면 행정지명 변화	14
[그림 2] 가평군 법정리 행정지명 변화 - 가평군, 청평면, 남면	15
[그림 3] 가평군 법정리 행정지명 변화 - 북면, 조종면, 상면, 설악면	16
[그림 4] 《輿地圖》 〈加平郡〉	18
[그림 5] 《海東地圖》 〈加平郡〉	18
[그림 6] 《地乘》 〈嘉平郡〉	20
[그림 7] 『戶口總數』 ‘加平’	20
[그림 8] 『朝鮮地誌資料』 ‘加平郡’ 서면과 북면	23
[그림 9] 1914년 3월 13일 『조선총독부 관보』 면의 명칭 및 구역(조선총 독부경기도령 제3호) 중 ‘가평군’	23
[그림 10] 《海東地圖》 〈京畿道·忠淸道〉 ‘華岳’	36
[그림 11] 『三國史記』 小祀 花岳 斤平郡	37
[그림 12] 화악산 범바위 제사터	37
[그림 13] 《輿地圖》 〈加平郡〉 과 『京畿誌』 〈부도〉 의 향교 위치 비교 ...	39
[그림 14] 《輿地圖》 〈양근군지지〉 ‘各面’	41
[그림 15] 『京畿邑誌』 〈幅員全圖〉 군내면과 ‘坊里’ 읍중·군내	45
[그림 16] 『京畿邑誌』 〈幅員全圖〉 상면·하면과 ‘坊里’ 조종상면·조종하면·	45
[그림 17] 『加平邑誌(京畿道)』 상면·하면	45
[그림 18] 『加平郡邑誌成冊』 서면과 북면	46
[그림 19] 『加平邑誌(京畿道)』 외서면·내서면과 상북면·하북면	46
[그림 20] 호명굴	50
[그림 21] 청평댐 공도교	52

[그림 22] 청평댐과 청평호	52
[그림 23] 양주군 수동면과 가평군 외서면 일대	53
[그림 24] 2003년 경춘선 청평역	56
[그림 25] 1760년 가평군 행정구역	63
[그림 26] 1789년 가평군 행정구역	64
[그림 27] 1871년 가평군 행정구역	65
[그림 28] 1899년 가평군 행정구역	66
[그림 29] 1914년 가평군 행정구역	67
[그림 30] 1915년 가평군 행정구역	68
[그림 31] 1938년 가평군 행정구역	69
[그림 32] 1942년 가평군 행정구역	70
[그림 33] 1963년 가평군 행정구역	71
[그림 34] 1973년 가평군 행정구역	72
[그림 35] 2004년 가평군 행정구역	73
[그림 36] 2015년 가평군 행정구역	74
[그림 37] 2016년 가평군 행정구역	75
[그림 38]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76

I. 서론

1. 연구 목적

지명은 ‘땅’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생각, 인식, 염원 혹은 지형·기후·식생 등과 같은 자연적 특성과 역사·문화·사회 등과 같은 인문학적 특성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이름’ 지어진 것이다. 즉, 지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표출되는 하나의 언어문화경관이다.¹⁾

이처럼 지명은 환경과 사람의 상호 관계를 통해 그 ‘땅’의 지역성을 내포하며, 이는 일정 영역에서 그 지역을 토대로 생활하며 자연환경이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촌락²⁾에서 더 잘 표현된다. 이러한 촌락지명은 촌락연구에 주요한 내용이다.³⁾

한국의 지명은 지리학, 지명학, 역사학, 국어학 등에서 오랜 기간 연구된 주제이며,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에 시작된 ‘한국지명조사사업’을 바탕으로 간행된 『한국지명총람』을 시작으로 1982년에 『한국지명요람』, 1991년에 『한국땅이름큰사전』, 2008년에 『한국지명유래집』이 발간되었고, 2008년부터 각 지역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간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명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연구되었으나, 대부분은 국가 주도로 전국 혹은 도(道) 단위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단위 형태로 연구되었다.

지명은 주변 환경의 변화, 새로운 문화의 유입 등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

1) 이혜은, 2000, “地名을 통해 나타난 地域文化”, 녹우연구논집 39, p.100.

2) 양보경,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 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지리학논총 7, p.29.

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p.25.

임없이 변화하며 생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은 지역마다 다르고, 각기 다른 시기에 지명에 영향을 미친다. 각 지명의 특징, 변화, 형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지역 단위인 촌락 단위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지자체나 기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 지명 변화의 요인과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화를 확인한 결과, 17세기까지는 지역의 범위와 지명 등 행정구역상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면·리의 변화가 활발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과 191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과 법정리가 통폐합되었다. 이때 개편된 행정구역 중 일부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다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1939년 경춘선 개통과 1943년 청평댐 준공은 자연환경과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변화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재까지 각 시기별 지명 변화의 요인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가평군에서는 1986년에 가평문화원이 설립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역연구와 지명연구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지형, 환경, 지명 유래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로 1986년에 『加平郡鄕土誌』를 발간하였다. 가평군 지명의 자료는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에 잘 망라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작업은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잊힌 지명들도 정밀하게 조사되어, 많은 연구자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다.⁵⁾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며 확인한 결과, ‘한국지명총람’의 경우

4) 1963년 외서면 내방리·외방리·입석리, 1973년 외서면 삼회리, 설악면 이천리, 2016년 상면 원흥리

5) 이근열, 1999, “지명의 변화 유형과 원인 - 양산 지명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9, p.112

전국 단위로 이뤄진 연구로, 가평 지역만의 특수한 요인에 따른 지명 변화 등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에 따른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5년 12월 16일 가평군 하면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종면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지역에서 발간된 지역지와 지역 원로들의 구술을 근거로 '1912년 일제에 의해 바뀐 하면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였던 조종현의 명칭을 되찾고자' 개명한다고 하였다.⁶⁾ 그러나 이미 1789년에 편찬된 『戶口總數』에서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899년에 제작된 『加平邑誌(京畿道)』에서 상면과 하면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오류가 오늘날 지명 변경 사유의 근거로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평군에 대한 지명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명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명 변화뿐만 아니라, 지명이 기록된 지리지와 지도 속에 담긴 내용을 한국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연구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지리적 특징, 역사적 사건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더욱이 지명은 당대의 지리 인식 체계, 자연적 특성, 인문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그 의미와 유래를 파악하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면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가평군의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을 시대별로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명변화와 함께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평군 지명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사회적 배경 및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여 그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가평군 지명, 지명 유래의 오류를 수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가평의 행정구역 변천을 지도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이와

6) "10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가평 '조종면' 선포식", 경기일보, 2015. 12. 1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95285>

7) 이기봉,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구소, pp188-189.

더불어 가평 지명 관리 및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1) 국내 지명 연구동향

우리나라에 현재 전하는 사료 중 『三國史記』 「地理志」부터 『高麗史』 「志地理」,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계속적으로 국가 주도로 지리지가 편찬되어 당대의 지명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지리지에는 고을의 역사가 가장 앞쪽에 배치된 건치연혁(建置沿革) 항목에 지명 변천 과정이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조선 후기에는 관방지도와 같이 국방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지도와 각 지역별 군현지도 등이 제작되었다. 국가가 안정화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민간에서도 지도가 제작되었다.⁹⁾ 이러한 지리지와 지도에는 당대 사람들의 지리 인식 체계가 반영된 다양한 자연, 행정, 인문 지명이 남아있다.

19세기 후반, 일제강점기에는 자원 수탈과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지명이 조사되고 정리되어 1:50,000 『구한말한반도지형도』, 『朝鮮地誌資料』 등이 편찬되었다. 특히, 근대 지형도 제작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명이 일본식으로 표준화되었다. 이때 우리나라 지명은 지명의 형태소가 표준화, 이름소의 한자화, 순우리말 지명이 훈(訓)·음(音)차를 빌어 일본식 한자 지명, 이전에 지명이 없던 장소에 새로운 한자지명이 생기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¹⁰⁾

8) 이기봉,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구소, p189.

9) 양보경,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pp.85-88.

광복 이후, 1958년부터 중앙 및 지방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명을 조사·정리하였다. 1960년에는 한국 고유 지명 보전을 위해 ‘한국지명 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국방부의 ‘중앙 지명 제정 위원회’에서 확보한 지명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 30개 시, 20개 구, 139개 군, 91개 읍, 1382개 면, 18,528개 리를 대상으로 700,000여 개의 지명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6년 『한국지명총람』 ‘서울편’ 간행을 시작하였으며, 강원편, 충북편, 충남편 上, 충남편 下, 경북편 1, 경북편 2, 경북편 3, 경북편 4, 경남편 1, 경남편 2, 경남편 3·부산편, 전북편 上, 전북편 下, 전남편 1, 전남편 2, 전남편 3, 전남편 4·제주, 경기편 上을 간행하였으며, 1986년 ‘경기편 下·인천편’을 끝으로 총 20권의 『한국지명총람』이 완간되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지명을 집대성한 『한국지명총람』은 1970년대에 우리 것을 되찾자는 뿌리 찾기와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각 지방의 행정기관, 문화원에서 발간한 지명 자료집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¹⁰⁾

이후 1982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요람』에는 우리 지명의 역사와 변천을 정리되었으며, 1987년에 발간된 『지명유래집』에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지명의 특징과 유래가 정리되었다. 1991년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명을 정리한 『한국지명총람』을 연구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나다순으로 편집한 『한국 땅이름 큰사전』이 간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각 지역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지명유래집』을 새롭게 구성한 『한글지명유래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필두로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일제강점기 지명의 변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3716&cid=43740&categoryId=44177>

11) 박병철, 2019,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지명학 30, pp.128-143

2) 가평군 지명 연구동향

가평군의 지역연구와 지명연구는 1986년 가평문화원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6년 발간된 『加平郡郷土誌』는 가평의 역사, 문화를 집대성한 지역지로, 1985년 간행된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형, 환경, 지명 유래, 설화 등을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후에 가평군에서 발간된 『加平郡誌』,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과 가평문화원에서 발간한 『가평의 역사와 인물』, 『가평의 사랑방 이야기』, 『가평의 지명과 유래 上』, 『가평의 지명과 유래 下』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후속 지역지의 내용은 『加平郡郷土誌』의 내용이 약간씩 수정되거나,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반복·재생산되었다. 가평 지명의 자료는 『한글지명총람』에 잘 망라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작업은 많은 가치를 지닌다. 지금은 사라지거나 잊혀진 조그만 언덕이나 바위와 같은 지명들도 정밀하게 조사되어, 많은 학자들의 자료의 근간으로써 이용되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전국·도 단위로 조사되어, 일부분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평군의 지명연구는 1980년대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지역지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추가보다는 기존 지역지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하여 형식적인 지역지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명 연구는 지속적인 지명 연구가 힘든 현실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¹³⁾ 또한, 선행 지역지의 오류가 일부 수정되지만,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은 해당 시기를 생략하는 등 연구 범위가 제한된 기초적인 지명연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12) 이근열, 1999, “지명의 변화 유형과 원인 : 양산 지명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9, p.112 (pp.111-128)

13) 권선정, 2011, “‘지명’과 ‘길’로 읽는 근대도시 대전의 형성과 변천 -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5(3), p.476. (pp.475-492)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평군 지명 변화의 요인과 유형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와 현지답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평군 행정지명과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구축하였다. 행정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지명 및 행정구역 변화를 분석하였고,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지명 변화와 유형 분포를 분석하였다.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기별 가평군 지명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고, 가평군의 인문·사회적 특수성을 지명에 반영하여 해석하였다.

1)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가평군의 지명과 관련된 사료는 지도, 지리지를 비롯하여 매우 방대한 양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명 분석 시 사용한 사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명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읍·면(邑·面)이 기록된 사료를 선정하였다 <표 1> .

2)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행정지명 데이터베이스

행정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시기별 사료에 기록된 읍·면 지명과 법정리(동·리) 지명을 정리하였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제작된 《輿地圖》, 《海東地圖》, 《地乘》, 《廣輿圖》, 《加平郡地圖》와 『輿地圖書』, 『戶口總數』, 『京畿誌』, 『加平郡邑誌』, 『京畿邑誌』, 『加平郡邑誌成冊』, 『加平邑誌

(京畿道)』에 기록된 읍·면 지명을 정리하였다. 이 중 『輿地圖書』, 『戶口總數』, 『京畿邑誌』는 법정리(동·리) 지명까지 정리하였다. 이후 사료에서는 읍·면, 법정리(동·리) 지명이 모두 나타나며, 19세기 후반 ~ 일제강점기 자료로 『朝鮮地誌資料』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조칙 및 칙령(勅令)과 조선총독부 관보의 조선총독부령 등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지명을 행정단위로 정리한 『한국지명총람』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관보, 가평군과 가평군 문화원에서 발간한 『加平郡誌』, 『加平郡鄉土誌』 등에 기록된 지명을 정리하였다.

(2)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시기별 사료에 기록된 자연지명을 정리하였다. 18세기에서 19세기 제작된 사료 중 《輿地圖》, 《海東地圖》, 《加平郡地圖》와 『京畿誌』, 『京畿邑誌』를, 일제강점기의 『朝鮮地誌資料』를, 광복 이후의 『한글지명유래집』과 디지털가평문화대전에 수록된 지명을 조사하였다.

3)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지도화

가평군의 지명 변화는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여 그 변화를 가시화하였다. 지명 변천 지도는 QGI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법정리 오픈 데이터를 기본으로 조선시대 후기부터 2021년까지 가평군의 행정구역을 복원하였다.

〈표 1〉 가평군 지명 분석에 사용한 자료

표제	편찬연대	소장처
『三國史記』	1145년	
『高麗史』	1449 ~ 1451년	
『朝鮮王朝實錄』	15 ~ 20세기 초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新增東國輿地勝覽』	1486년	
《輿地圖》(古4709-68-v.1-6)	1736 ~ 1767년	규장각
『輿地圖書』	1760년	
《海東地圖》(古大4709-41-v.1-8)	1724 ~ 1776년	규장각
《海東地圖》(古4709-61)	1776년	규장각
《地乘》(奎15423-v.1-6)	1776 ~ 1878년	규장각
《廣輿圖》(古 4790-58)	19세기	규장각
『戶口總數』(奎1602-v.1-9)	1789년	규장각
『京畿誌』(奎12178-v.1-4)	1842년	규장각
『加平郡邑誌』(奎17373)	1842년	규장각
『京畿邑誌』(奎12177-v.1-6)	1871년	규장각
《加平郡地圖》(奎10367)	1872년	규장각
『加平郡邑誌成冊』(奎10729-v.1-2)	1899년	규장각
『加平邑誌(京畿道)』(k2-4201)	1899년	장서각
『朝鮮地誌資料』(古2703)	1911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	1910 ~ 1945년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사』	2004년	경기도

『京畿道史資料集- 日帝强占期篇Ⅰ』	2006년	경기도
『京畿道史資料集- 日帝强占期篇Ⅲ』	2006년	경기도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	1985년	한글학회
『加平郡郷土誌』	1986년	가평문화원
『加平郡誌』	1991년	가평군
『加平郡誌』	2006년	가평군
『한국지명유래집』	2008년	국토지리정보원
디지털가평문화대전	2020년	장서각
국토정보플랫폼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보		행정안전부

* 소장처의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약칭으로, 이 후 본문에서는 약칭을 사용함.

* 소장처의 장서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약칭으로, 이 후 본문에서는 약칭을 사용함.

II. 가평군의 행정지명

1.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행정지명

‘행정지명’은 지방자치법에 “시·도·읍·면·동·리 등의 명칭”으로 정의한다. 즉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토를 분할 구획한 경계를 일컫는 지명이다.¹⁴⁾ 2021년 현재 가평군 행정구역 체제는 1 읍(가평읍), 5 면(북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설악면) 61 법정리, 126 행정리, 597 반이다.¹⁵⁾

가평군은 고구려의 근평(斤平) 또는 병평군(并平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가평(嘉平)으로 바꾸어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가평(加平)으로도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가평(嘉平)과 가평(加平)이 혼용되었다.

가평군은 17세기까지 행정구역 변화가 거의 없다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면·리(面·里)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과 1915년 행정구역개편¹⁶⁾으로 면과 법정리가 통폐합되었다. 이때 개편된 행정구역 중 일부¹⁷⁾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대다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1939년 경춘선 개통과 1943년 청평댐 준공은 자연환경과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三國史記』 「地理志」를 시작으로, 조선 건국 후 수도 위치 변화에 따

14) 양보경, 정치영, 2006, “한국 지명의 업무체제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회지 18(3), p.79.

15) 가평군청 홈페이지 가평소개 가평안내 행정구역
(<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750>)

16) 1914년 4월 1일 시행 ‘면의 명칭 및 구역’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중 ‘가평군’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3월 13일), 1915년 11월 15일 시행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57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11월 15일)

17) 1963년 의서면 내방리·외방리·입석리, 1973년 의서면 삼회리, 설악면 이천리, 2016년 상면 원흥리

른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변화, 지역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¹⁸⁾ 국가 주도의 많은 지리지와 지도가 편찬되었고, 조선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민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지도가 편찬되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전국 지도, 도별지도뿐만 아니라 군·현단위의 읍지, 군현지도, 마을지도가 제작되어 다양한 지명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¹⁹⁾

가평 또한 『三國史記』에 기록된 이후, 『高麗史』, 조선 초기 제작된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지명이 기록되어 전한다. 가평(加平)이라는 지명의 변화 연대는 확인 할 수 있지만 읍·면, 법정리와 같은 세세한 행정지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하는 사료 중 가평군 읍·면 행정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輿地圖》를 시작으로, 18세기 중반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행정지명을 정리하였다.

18) 양윤정, 2013,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pp3-4

19) 양보경, 정치영, 2006,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 회지 18(3),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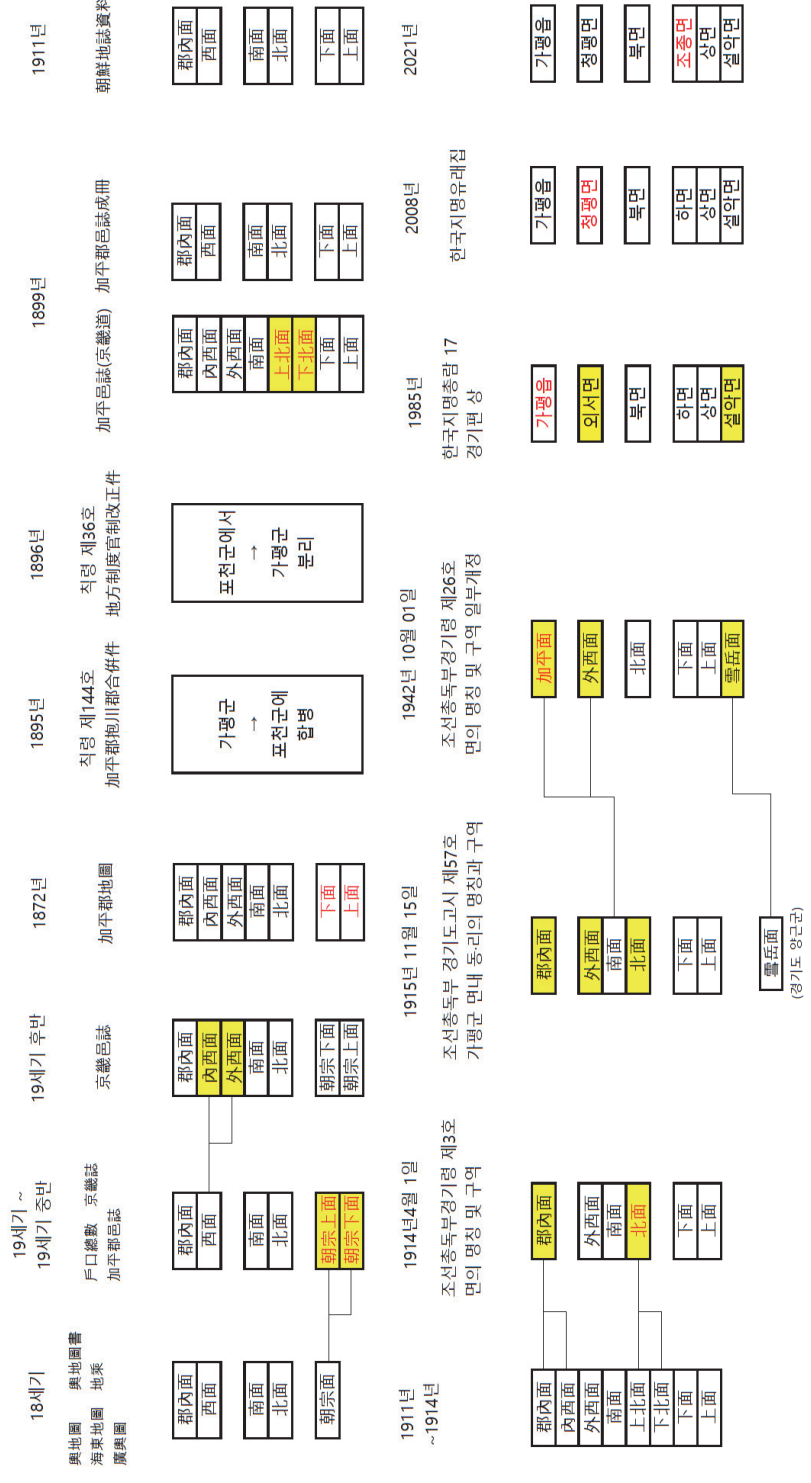
2. 가평군의 행정지명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규장각 소장본과 관련 부처의 소장본 중 가평군 읍·면 행정지명이 기록된 사료를 조사하였다. 조선후기에는 《輿地圖》, 《海東地圖》, 《地乘》, 《廣輿圖》, 《加平郡地圖》와 『輿地圖書』, 『戶口總數』, 『京畿誌』, 『加平郡邑誌』, 『京畿邑誌』, 『加平郡邑誌成冊』, 『加平邑誌(京畿道)』와 일제강점기에는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 관보』, 광복 이후에는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과 『한국지명유래집』의 가평군 행정지명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 중 『輿地圖書』, 『戶口總數』, 『京畿邑誌』, 『朝鮮地誌資料』, 『조선총독부 관보』,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은 범정리 자료 또한 정리하였다.

1차적으로 사료 내의 행정지명을 추출하였고, 2차적으로 엑셀 파일에 각 시기별 행정지명을 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엑셀 파일에 정리된 시기별 가평군 읍·면과 범정리(동·리)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그림 1)(그림 2)(그림 3).

(그림 1)의 노란색 사각형은 신설, 분리, 통합 등으로 읍·면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나타낸다. 사각형 사이 실선은 각 읍·면이 어떻게 신설, 분리, 통합 되는지와 같은 변화 과정 나타낸다. 빨간색 표기된 지명은 행정지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2)와 (그림 3)의 노란색 사각형은 신설, 분리, 통합 등으로 읍·면 행정 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나타낸다. 빨간색 표기된 지명은 행정지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나타낸다. 사각형 사이 실선은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각 읍·면이 어떻게 신설, 분리, 통합 되는지와 같은 변화 과정 나타낸다.



* 노란색은 신설, 분리, 통합 등으로 읍·면 행정 구역이 변경된 경우, 빨간색은 신설, 분리, 통합 등으로 읍·면 행정 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나타냄.

[그림 1] 가평군 읍·면 행정지명 변화



[그림 3] 가평군 법정리 행정지명 변화 - 북면, 조중면, 상면, 설악면

1) 18세기 ~ 19세기의 행정지명

18세기 중반에 가평군은 5면(郡內面, 朝宗面, 西面, 南面, 北面)체제이다. 설악면은 당시 양근군²⁰⁾ 북면(北面)으로 가평군 사료에서는 1942년부터 확인할 수 있다.²¹⁾

《輿地圖》 〈加平郡〉에는 서남(南西)쪽이 지도 상단에 그려졌으며, 남면이 빠진 4면만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輿地圖》 〈가평군주기〉 ‘各面’에는 남면을 포함한 5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그림 4).

『輿地圖書』 「加平郡地誌」에는 가평군의 읍·면뿐만 아니라 방리(坊里)까지 기록되어 있다. 군내면에는 향교리·대곡리·승안산리·마장리·개곡리·달전리, 조종면에는 울길리·연동리·항사리·임초리·현리·관미리·신복리·대부산리, 서면에는 방동리·입석리·대승리·잠곡리·하감천리·상감천리·수리현리·색현리·삼의곡리, 남면에는 이영동리·비령대리·복장포리·고성리·호명리, 북면에는 이곡리·제구령리·목동리·물내리·도대리·백둔리가 기록되어 있다. 〈부도〉에는 자연지명, 인문지명만 표기되어 있다.

《海東地圖》 〈加平郡〉에는 읍치 뒤쪽과 좌우에 산을 배치하고, 북한강을 지도의 왼쪽, 가평천을 읍치 아래에 그려졌다. 이는 읍치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등지고 물줄기인 가평천과 북한강을 마주 보고 있는 배산임수 풍수사상이 지도제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²²⁾ 또한, 남면까지 5면 모두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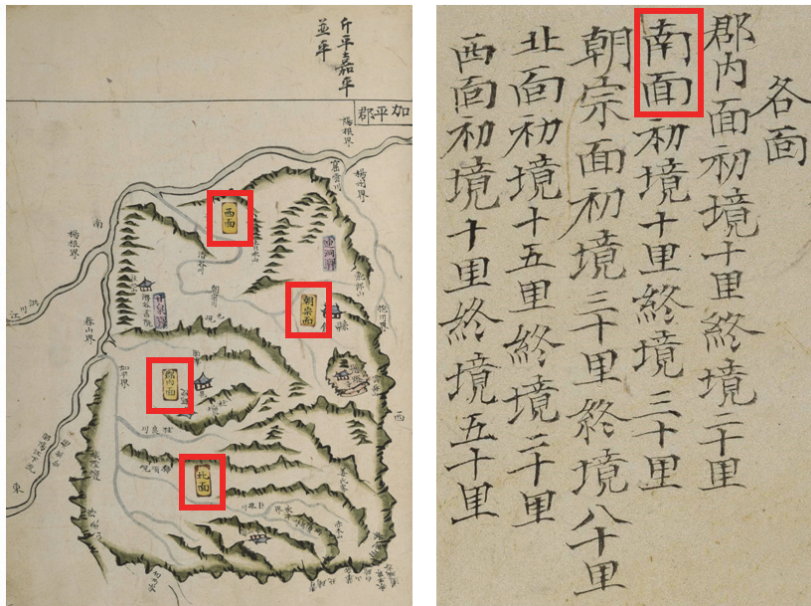
20) 현재 경기도 양평군 일부,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근군과 지평군 통합

21) 1942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됨.

1942년 10월 1일 시행 〈도의 위치·관할구역·부군의 명칭·관할구역 중 일부 개정(조선총독부령 제242호)〉 (1942년 9월 30일)

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자료 및 원문 검색 해동지도 개별 지도 해제 ‘가평군’

<https://kyudb.snu.ac.kr/search/search.do?searchArea=0&totalSearchString=%ED%95%B4%EB%8F%99%EC%A7%80%EB%8F%84>



[그림 4] 《興地圖》 〈加平郡〉



[그림 5] 《海東地圖》 〈加平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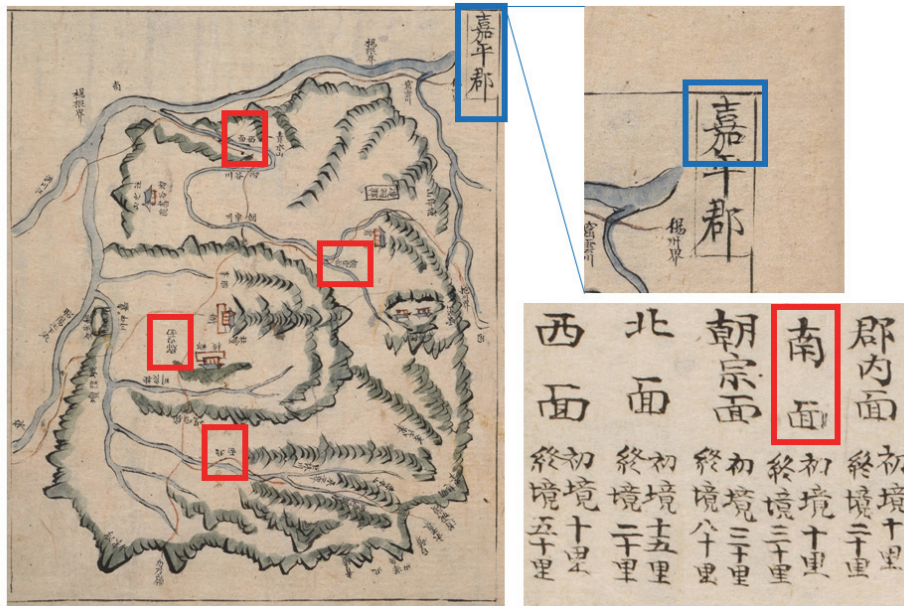
지도첩 《地乘》에 수록되어 있는 〈嘉平郡〉 지도는 《輿地圖》에 수록된 가평군의 지도와 전체적인 구도는 거의 동일하고, 지도의 내용 또한 남면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輿地圖》와 같이 주기 부분에는 남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내체가 가평군(加平郡)이 아닌 가평군(嘉平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의 지명인 가평군(嘉平郡)이 조선시대까지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6).

《廣輿圖》 〈加平郡〉에서는 《輿地圖》와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廣輿圖》도 서남(南西)쪽이 지도 상단에 그려졌으며, 남면이 빠진 4면만이 표기되었고, 〈가평군주기〉에 남면을 포함한 5면이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중반까지 읍·면에 변화가 없었던 가평군은 18세기 후반 조종면이 조종천(朝宗川)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은 조종상면(朝宗上面), 동쪽 지역은 조종하면(朝宗下面)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 서면이 내서면(內西面)과 외서면(外西面)으로 분리되었다.

『戶口總數』 ‘加平’에는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북면 제구령리(濟救寧里) 일부가 소법리(所法里)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가평군 행정구역은 5면 34리에서 6면(군내면, 북면, 남면, 서면, 조종상면, 조종하면) 35리 체제로 변화하였다(그림 7).

『京畿誌』 ‘加平郡’과 『加平郡邑誌』에서 가평군 행정구역은 호구총수와 동일하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6면 35리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림 6] 《地乘》 〈嘉平郡〉

加平 面六里 元戶一千九百二十二口六千四百五十三 男三千五百	西面 元戶四百十七口一千四百三十九 男五百六十八	南面 元戶一百九十三口六百五十六 男三百三十七	北面 元戶二百六十九口九百三十五 男五百四十一	郡内面 元戶四百八十一口一千三百七十六 男七百六十六	朝宗上面 元戶二百四十二口八百四十二 男四百八十三	朝宗下面 元戶三百二十口一千二百五十四 男七百一十四
---	--------------------------------	-------------------------------	-------------------------------	----------------------------------	---------------------------------	----------------------------------

[그림 7] 『戶口總數』 ‘加平’

1871년에 편찬된 『京畿邑誌』 「加平邑誌」에는 서면이 외서면과 내서면으로 분리되어 있다. 『京畿邑誌』 「加平邑誌」는 면(面)이 ‘방리(坊里)’와 〈幅員全圖〉에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방리(坊里)’에서 군내면은 읍중(邑中)과 군내(郡內)로 나뉘 기록되었고, 〈幅員全圖〉에는 군내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방리(坊里)’에는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기록되어있지만, 〈幅員全圖〉에는 조종이 생략된 상면(上面)과 하면(下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1872년에 제작된 《加平郡地圖》에는 군내면, 상면, 하면, 외서면, 내서면, 남면, 북면인 7면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이 『京畿邑誌』 「加平邑誌」 〈幅員全圖〉에서 조종이 생략되었던 것과 같이 《加平郡地圖》에서도 생략되어 상면과 북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2) 19세기 후반 ~ 일제강점기의 행정지명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조직 및 칙령²³⁾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전국이 23부제로 개편되어 가평군은 한성부(漢城府)에 속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가평군은 한성부 포천군에 편입되었다.²⁴⁾ 약 1년 후인 1896년 8월 4일에 지방제도가 다시 13도제로 개편되어 가평군은 포천군에서 분리되었다.²⁵⁾

1899년에 편찬된 『加平郡邑誌成冊』에는 외서면과 내서면이 서면(西面)으로 통합되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1899년에 편찬된 『加平邑誌(京

23) 칙령(勅令) 제 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년) 5월 26일 병신

24) 칙령(勅令) 제144호 가평군을 포천군에 합병하는 안건(加平郡抱川郡合併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년) 7월 19일 정사

25) 칙령(勅令) 제35호,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양력

畿道)』에서는 서면이 외서면·내서면으로, 북면이 상북면·하북면으로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加平邑誌(京畿道)』의 행정지명이 상세히 반영되어 기록되었으며, 1899년 이전에 가평군 북면이 상북면과 하북면으로 분리되어, 가평군은 8면이 되었다.

1911년에 편찬된 『朝鮮地誌資料』 ‘加平’ ‘洞里村名’에는 이미 1899년에 분리되어 표기된 외서면과 내서면이 서면으로, 상북면과 하북면이 북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14년 4월 1일에 면의 명칭 및 구역 개편에서 8면이 6면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보면, 『朝鮮地誌資料』에는 『加平邑誌(京畿道)』의 행정구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1910년 8월 일제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9월 30일에²⁶⁾ 지방 관제를 개편하였는데, 면(面)·사(社)·방(坊)·부(部)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면(面)으로 통일하고, 이를 기초적 행정단위로 공식화하였다. 1914년 4월 1일에 면의 명칭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내서면이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상북면, 하북면이 북면으로 통합되었다(그림 9).²⁷⁾

1915년 11월 15일에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 개편으로 84개의 동·리가 46개의 리로 통폐합되었다.²⁸⁾ 또한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장천리(長川里)가 외서면 입석리(立石里)에 통합되었고, 영평군(永平郡) 이동면(二東面) 적목리(赤木里)가 북면에 편입되어 가평군은 6면 47리가 되었다. 도시보다 행정구역 개편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평군은 일제강점기 이후, 61개 법정리 중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 삼회리, 이천리, 원흥리, 운악리를 제외하고 1915년에 개편된 법정리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6) 칙령(勅令) 제354호 조선 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勅令) 제357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순종실록부록 1권 순종 3년(1910년) 9월 30일 양력

27) 면의 명칭 및 구역(1914. 4. 1.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중 ‘가평군’. 『조선총독부 관보』(1914년 3월 13일)

28)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1915. 11. 15.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57호). 『조선총독부 관보』(1915년 11월 15일)

朝鮮地誌資料	山名	川名	洞名	道名	梨谷	上沫洞	下沫洞
下三儀谷	佛岐山	胎封川	濟救庵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上色峴	朝宗川	清平川	明芝山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中色峴	屈雲川	清平川	大牙山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軟葛里	下色峴	清平川	華岳山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洞名	下色峴	清平川	華岳山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朝鮮地誌資料	下色峴	清平川	華岳山	道大里	梨谷	上沫洞	下沫洞

[그림 8] 『朝鮮地誌資料』 ‘加平郡’ 서면과 복면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大正三年三月十三日(第三種郵便物認可)	和道	瓦阜	漢金	九里	蘆海	伊淡	長興	郡名	郡稱	郡區
上道面ノ内漢金面ノ區域ニ屬セサル地域、下道面ノ區域ニ屬セサル地域	瓦阜面	漢金面	九里面	蘆海面	伊淡面	長興面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稱	郡區
草阜面一圓、下道面時雨洞、白月里、瓦孔面一圓、上道面芝沙里、好滿坪洞里、堀内里	瓦阜面	漢金面	九里面	蘆海面	伊淡面	長興面	上北面一圓、下北面一圓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稱	郡區
九皆面一圓、忘憂里面一圓、蘆原面葛梅洞、堀蘆原面ノ内別内面及九里面ノ區域ニ屬セサル地面一圓、芭夜面鳥岩洞	瓦阜面	漢金面	九里面	蘆海面	伊淡面	長興面	外西面一圓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稱	郡區
伊淡面一圓	瓦阜面	漢金面	九里面	蘆海面	伊淡面	長興面	上面一圓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稱	郡區
長興面一圓	瓦阜面	漢金面	九里面	蘆海面	伊淡面	長興面	下面一圓	郡内面一圓、内西面一圓	郡稱	郡區

[그림 9] 1914년 3월 13일 『조선총독부 관보』 면의 명칭 및 구역(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중 ‘가평군’

1915년 개편 이후, 1938년 1월 1일 군내면(郡內面)이 가평면(加平面)으로 개칭되었다.²⁹⁾

1942년 10월 1일에 양평군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에 편입되었다.³⁰⁾ 같은 날 남면에 속해 있던 산유리, 북장리, 금대리, 이화리가 가평면으로, 고성리, 호명리가 외서면으로 편입되었고³¹⁾ 남면은 폐지되어 가평군은 6면 61리가 되었다.

3) 광복 ~ 2021년의 행정지명

1963년 1월 1일에 외서면 구운천 주변의 마을인 내방리(內坊里), 외방리(外坊里), 입석리(立石里)가 양주군 수동면으로 편입되었다.³²⁾

1973년 7월 1일에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에 편입되었고,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중 일부가 설악리에 이천리로 개칭되어 편입되었다.³³⁾ 같은 날, 가평면(加平面)은 가평읍으로 승격되었다.³⁴⁾

2004년 12월 1일에 외서면은 면내에서 널리 알려진 청평리(淸平里)의 지명을 따서 청평면(淸平面)으로 개칭되었다.³⁵⁾

29) 면의 명칭 및 구역 일부 개정(1938. 1. 1.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8호). 『조선총독부 관보』 (1938년 2월 3일)

30) 도의 위치·관할구역·부군의 명칭·관할구역 중 일부 개정(1942. 9. 30. 조선총독부령 제242호). 『조선총독부 관보』 (1942년 9월 30일) 설악면 14개의 리(가일리, 묵안리, 미사리, 방일리, 사릉리, 선촌리, 설곡리, 송산리, 신천리, 엄소리, 위곡리,창의리, 천안리, 회곡리)가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31) 면의 명칭 및 구역 일부개정(1942. 10. 1.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6호). 『조선총독부 관보』 (1942년 10월 23일)

32)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1963. 1. 1. 시행 법률 제1176호). 관보 제3301호 (1962년 11월 21일)

33)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73. 7. 1. 시행 대통령령 제6542호). 관보 제6396호(1973년 3월 12일)

34) 읍 설치에 관한 규정(1973. 7. 1. 시행 대통령령 제6543호). 관보 제6396호(1973년 3월 12일)

35)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04. 11. 2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 2004년 12월 1일 시행됨.

2015년 12월 16일에 하면이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지역고유지명인 조종면(朝宗面)으로 개칭되었다.³⁶⁾

2016년 7월 25일 상면 태봉리(胎封里) 중 태봉 1리는 태봉리로, 태봉 2리는 원흥리(元興里)로 분리되었고, 같은 날 조종면 하판리(下板里)가 운악리(雲岳里)로 개칭되었다.³⁷⁾

2021년 현재 가평군은 1읍(가평읍) 5면(조종면, 상면, 청평면, 북면, 설악면) 61리(읍내리, 대곡리, 달전리, 하색리, 상색리, 두밀리, 경반리, 송안리, 마장리, 개곡리, 이화리, 산유리, 북장리, 금대리/현리, 대보리, 신상리, 운악리, 상판리, 신하리, 마일리/연하리, 향사리, 행현리, 임초리, 덕현리, 태봉리, 원흥리, 상동리, 울길리, 봉수리/청평리, 상천리, 하천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목동리, 소법리, 화악리, 도대리, 적목리, 백둔리, 제령리, 이곡리/신천리, 선촌리, 회곡리, 사룡리, 송산리, 미사리, 위곡리, 창의리, 엄소리, 설곡리, 묵안리, 가일리, 방일리, 천안리, 이천리)를 관할하고 있다.

36)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 2558호로 개정된 것). 2015년 12월 16일 시행됨.

37) 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2016 .7. 2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58호로 개정된 것). 2016년 7월 25일 시행됨.

Ⅲ. 가평군의 자연지명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제작된 지리지와 고지도를 통해 가평군 자연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리지의 경우 전국단위의 지리지와 함께 18세기 이후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편찬되었던 읍지를, 고지도의 경우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된 전국지도보다는 가평군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반영한 군현지도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군현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회화적으로 묘사한 형태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오늘날 제작된 지도는 행정지명, 자연지명뿐만 아니라 아주 좁은 골목의 가게명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도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서 방대한 양의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된 것은 상당히 근래이다.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와 지리지는 법정리 기록이 있는 사료가 손에 꼽히고, 읍·면 또한 간략하게 축약되어 지도에 표기되어있으며,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몇몇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이 기록되어있을 뿐이다. 당대 지도에 기록된 지명은 지리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곳이다. 따라서 지명에는 당시 사람들의 가평군에 대한 지리 인식 체계가 반영되어있어 지리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총독부 조선임시토지조사국은 조선의 영토 총 220,762km²를 측량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표준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명을 조사하였다.³⁸⁾ 이후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1:50,000지형도가 제작되면서 지명이 광범위하게 지도에 표기되었다. 이처럼, 1:50,000지형도가 제작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3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0, 대한민국국가지도집Ⅱ 2020, 우리가 사는 땅_지형_지형도 제작.

정도로 많은 양의 지명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평군 지명 사료 중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 지리지를 선정하여 지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선정한 사료는 조선 후기 《輿地圖》, 《海東地圖》, 『京畿誌』 〈부도〉, 『京畿邑誌』 〈幅員全圖〉, 《加平郡地圖》, 『加平郡邑誌成冊』 〈부도〉 를, 일제강점기에는 『朝鮮地誌資料』 ‘山名’·‘嶺峙峴名’·‘江川名’을, 광복 이후에는 『한국지명유래집』, 『디지털가평문화대전』 ‘자연지명’이다.

1. 가평군 자연지명의 분류와 분포

자연지명은 크게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으로 분류한다. 산지는 산맥, 산, 골짜기, 고개 등이 속하며, 하천에는 강, 천, 호수, 폭포 등이 속한다.

가평군은 한반도의 중부지방인 경기도 동부에 위치한다. 가평군에 속한 산줄기는 한북정맥(漢北正脈) 남쪽과 한강기맥(漢江岐脈) 북쪽에 속한다. 두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가평천(加平川), 조종천(朝宗川), 미원천(迷原川)은 가평군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북한강에 합류된다.

가평군은 전체면적에서 산림의 비율이 80%이다. 경기도의 산림 비율이 50%³⁹⁾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수도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산림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평야보다는 산, 고개, 구릉지와 같은 산지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한강의 지류인 북한강이 군을 관통하고, 가평천, 조종천, 미원천 등을 비롯한 많은 하천이 가평군 곳곳에서 흘러 다양한 하천 지형이 발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평군 자연지명 유형을 산지(산, 봉, 악 등), 고개(고개, 령, 현, 치 등), 하천(강, 천, 호, 폭포 등), 기타로 나눠 정리하였다 <표 2> .

39) 산림청, 2020년 행정구역별 임상별 면적 및 축적
가평군 총 면적 84,366ha 중 산림면적 68,332ha, 경기도 총 면적 1,019,500ha 중 산림 면적 512,105ha

〈표 2〉 가평군 자연지명 분포

자료	산지	고개	하천	기타	합계(%)
輿地圖	12(48)	5(20)	7(28)	1(4)	25(100)
海東地圖	12(44.4)	6(22.2)	8(29.6)	1(3.7)	27(100)
京畿誌	13(40.6)	9(28.1)	9(28.1)	1(3.1)	32(100)
京畿邑誌	12(42.9)	9(32.1)	6(21.4)	1(3.6)	28(100)
加平郡地圖	12(40)	11(36.7)	6(20)	1(3.3)	30(100)
朝鮮地誌資料	15(34.1)	20(45.5)	9(20.4)	0(0)	44(100)
한국지명유래집	20(57.1)	9(25.7)	5(14.3)	1(2.9)	35(100)
디지털가평문화대전	53(42.1)	11(8.7)	60(47.6)	2(1.6)	126(100)
합계	149(42.9)	80(23.1)	110(31.7)	8(2.3)	347(100)

〈표 2〉에서의 결과 가평군 자연지명은 중복된 것을 포함하여 《輿地圖》에 25개, 《海東地圖》에 27개, 『京畿誌』에 32개, 『京畿邑誌』에 28개, 《加平郡地圖》에 30개, 『朝鮮地誌資料』에 44개, 『한국지명유래집』에 35개, 『디지털가평문화대전』에 126개로 총 347개가 집계되었다. 가평군의 자연지명을 산지, 고개, 하천, 기타로 분류하면, 산지가 149개(43.5%)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하천 110개(31.7%), 고개 80개(23.1%), 기타 8개(2.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래 고개는 크게 산지에 속할 수 있는 분류로 산지와 고개를 합하면 229개로 산지와 관련된 지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6%이다. 전체 면적에서 산림의 비율이 높은 가평군의 자연환경이 지명에도 반영되었다.

가평군 자연지명 조사 이래, 가평군 하천 지명 비율은 30% 미만이었으나, 2021년 『디지털가평문화대전』에는 47.6%로 증가하였다. 이는 오늘날 가평군에서 산과 더불어 하천도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2. 가평군의 자연지명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규장각 소장본과 관련 부처의 소장본 중 조선 후기에 《輿地圖》, 《海東地圖》, 『京畿誌』 〈부도〉, 『京畿邑誌』 〈幅員全圖〉, 《加平郡地圖》, 『加平郡邑誌成冊』 〈부도〉 를, 일제강점기에는 『朝鮮地誌資料』 ‘山名’·‘嶺峙峴名’·‘江川名’을, 광복 이후에는 『한국지명유래집』, 『디지털가평문화대전』 ‘자연지명’을 조사하였다.

1차적으로 사료 내의 자연지명을 추출하였고, 2차적으로 엑셀 파일에 각 시기별 자연지명을 입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엑셀 파일에 정리된 시기별 가평군 자연지명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은 조선시대, <표 4> 는 일제강점기부터 2021년까지의 가평군 자연지명을 정리하였다.

<표 3> 조선시대 가평군 자연지명

輿地圖	海東地圖	京畿誌	京畿邑誌	加平郡地圖
加平川	嘉平川	加平川	←	←
姜氏峯	←	←	←	←
巨林川	巨林川	x	x	x
桂良川	桂良川	←	←	←
窟雲川	←	←	x	x
道城峯	道城嶺	←	←	←
明楚峯	明芝峯	x	x	x
勿乃峯	勿乃嶺	勿來峴	勿乃峴	←
白磧山	白磧	x	x	x
浮來山	浮來山	寶納山	←	←
飛郎山	←	祝靈山	祝炅山	祝靈山
色峴	←	←	←	←
兩邊馬峙	兩道馬峙	←	←	兩刀磨峙
雲岳山	←	←	←	←
潛谷川	潛谷川	←	←	←
獐項峴	獐項峴	獐峴	←	←
赤木山	赤木山	x	x	x
朝宗川	朝宗川	←	←	←

注之山	加柱之山	x	x	x
靑水山	靑水山	x	x	x
靑磧	靑磧	x	x	x
靑平川	靑平川	←	←	靑平川
超然臺	←	←	←	←
胎峯	←	←	中宗大王胎峯	中宗大王御胎封山
華岳	華岳山	←	←	←
	高城嶺	←	←	←
	五木川	←	x	x
		釗峯	←	釗峰山
		犬齒山	←	←
		佛岐山	佛岐	佛岐山
		長牲峴	←	←
		葛峙	←	葛峙峴
		大輿封山	x	大報坳古址
		禿山	←	←
		水多山	←	x
		十二灘	←	←
		掩峴	←	奄峴
		玉女峯	←	←
				大鍼峴
				虎鳴峴

* 빨간색은 지명이 변경된 경우, '←'는 앞의 지명과 동일한 경우, 'x'는 자료원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4> 일제강점기 ~ 2021년 가평군 자연지명

朝鮮地誌資料	한국지명유래집	디지털가평문화대전
加平川	가평천(加平川)	←
姜氏峰山	강씨봉(姜氏峰)	강씨봉(姜氏峰)
x	x	x
桂梁川	x	x
屈雲川	x	x
x	x	도성고개(道成-)
明芝山	명지산(明智山)	←
勿乃嶺	x	실운현(實雲峴)
x	x	x
寶納山	보납산(寶納山)	←
祝靈山	축령산(祝靈山)	←
色峴	빛고개	←
x	도마치고개 (道馬峙고개)	도마치재(道馬峙-)
雲岳山	운악산(雲岳山)	←

	X	X	X
	獐峴	X	X
	X	X	X
	朝宗川	조종천(朝宗川)	←
	X	X	X
	X	X	X
	X	X	X
	清平川	X	X
	X	X	X
	胎封山	태봉산(胎封山)	←
	華岳山	화악산(華岳山)	←
	高城峴	X	X
	五木川	X	달전천(達田川)
	劔峰山	X	칼봉산(-峰山)
	佛岐山	불기산(佛岐山)	←
	長昇峴	X	X
	葛峙峴	X	X
	X	X	X
	X	X	X
	X	X	X
	X	X	십이탄천(十二灘川)
	應峴	X	응봉(鷹峰)
	玉女峰山	X	X
	大成峴	X	X
	X	X	X
	檜貝嶺	X	X
	九耳木嶺	X	귀목봉(鬼木峰)
	菊水嶺	X	X
	介老峴	X	X
	鷄冠山	X	계관산(鷄冠山)
	柄峴	X	X
	烽隧峴	X	X
	佛岐嶺	X	X
	秘琴里嶺	X	X
	霜山	X	서리산(-山)
	인지비고지	아재비고개	아재비고개
	永陽川	X	X
	元興川	X	X
	紫芝峰山	X	X
	竹屯川	X	X
	車踰嶺	X	X
	希乃峴	X	X

虎鳴山	호명산(虎鳴山)	←
花踰峴	X	X
	<p><산지> 대금산(大金山), 가덕산(駕德山), 곡달산(鶻達山), 봉미산(鳳尾山), 북배산(北培山), 수덕산(修德山), 연인산(戀人山), 유명산(有明山), 은둔산(銀頭山), 장락산(長樂山), 화야산(禾也山)</p> <p><고개> 덕고개(德고개), 망두고개, 목빈재고개, 백정고개(白丁고개), 비치네고개, 용넉이고개</p> <p><하천> 용추계곡(龍湫溪谷), 호명굴(虎鳴窟), 설곡천(雪谷川), 청평호(淸平湖)</p>	<p><산지> 대금산(大金山), 가덕산(駕德山), 곡달산(鶻達山), 봉미산(鳳尾山), 북배산(北培山), 수덕산(修德山), 연인산(戀人山), 유명산(有明山), 운두산(雲頭山), 장락산(長樂山), 화야산(禾也山), 개주산(介靑山), 고동산(古同山), 광주산맥(廣州山脈), 구나무산(-山), 국망봉(國望峰), 귀목봉(鬼木峰), 깃대봉(-峰), 녹수봉(綠水峰), 도마봉(道馬峰), 매봉(-峰), 몽덕산(夢德山), 민둥산(-山), 백둔봉(柏屯峰), 뽕루봉(-峰), 삼태봉(三台峰), 석룡산(石龍山), 소구니산(-山), 어비산(漁飛山), 왕터산(王-山), 원통산(圓通山), 용봉(鷹峰), 주금산(鑄錦山), 주발봉(周鉢峰), 중미산(仲美山), 청계산(淸溪山), 청우산(靑雨山), 촛대봉(-臺峰), 통방산(通方山), 한북정맥(漢北正脈)</p> <p><고개> 덕고개(德-), 목빈재고개(-), 백정고개(白丁-), 넉미재(-), 수리재(秀理-), 신로령(新路嶺), 실운현(實雲峴)</p> <p><하천> 용추계곡(龍湫溪谷), 설곡천(雪谷川) 청평호(淸平湖), 개곡천(開谷川), 경덕천(驚德川), 경반계곡(鏡盤溪谷), 경반천(鏡盤川), 귀목계곡(鬼木溪谷), 녹수계곡(綠水溪谷), 도마천(道馬川), 도마치계곡(道馬峙溪谷), 두밀천(杜密川), 마일천(馬日川), 마장천(馬場川), 명지계곡(明智溪谷), 명지천(明智川), 명지폭포(明智瀑布), 무운폭포(舞雲瀑布), 무주채폭포(舞酒菜瀑布), 미사천(彌沙川), 미원천(迷源川), 백년폭포(百年瀑布), 백둔천(柏屯川), 벽계천(蘗溪川), 복호동폭포(伏虎洞瀑布), 봉수천(烽燧川), 북한강(北漢江), 산유천(山柳川), 상동천(霜洞川), 상천천(上泉川), 설곡천(雪谷川), 세곡천(細谷川), 소법천(所法川), 송산천(松山川), 수락폭포(水落瀑布), 수리천(秀理川), 승안천(升安川), 어비계곡(漁飛溪谷), 용소폭포(龍沼瀑布), 용추폭포(龍湫瀑布), 운악계곡(雲岳溪谷), 유명계곡(有名溪谷), 이화천(梨花川), 임산계곡(林産溪谷), 임산폭포(林産瀑布) 임초천(林草川), 제청천(祭廳川), 조무락계곡(鳥舞樂溪谷), 조종천계곡(朝宗川溪谷), 장개울계곡(-溪谷), 창의천(倉宜川), 행현천(杏峴川), 홍적천(紅積川), 홍천강(洪川江), 화악천(華岳川), 화야산계곡(禾也山溪谷).</p> <p><기타> 방일리 음방마을숲(訪逸里陰方-), 자라섬,</p>

* 빨간색은 지명이 변경된 경우, '←'는 앞의 지명과 동일한 경우, 'X'는 자료원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 <표 4>의 지명 순서는 <표 3>과 같음.

1) 조선시대의 자연지명

조선 후기에 제작된 《輿地圖》, 《海東地圖》, 『京畿誌』, 『京畿邑誌』, 《加平郡邑誌》에는 (加平川, 姜氏峯, 桂良川, 道城嶺, 勿乃嶺, 浮來山, 飛郎山, 色峴, 兩邊馬峙, 雲岳山, 潛谷川, 獐項峴, 朝宗川, 靑平川, 超然臺, 胎峯, 華岳山⁴⁰⁾)의 자연지명이 시대에 관계 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록된 자연지명의 수가 증가하며, 조선시대 자료에 수록된 지명은 자연지명이 인문지명보다 많이 표기되었다 <표 5>.⁴¹⁾ 이는 산, 고개, 하천 등의 자연지형이 지역의 경계, 농업용수 확보 등 당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조선후기 지리지·지도에 기록된 가평의 유형별 지명 비율

	輿地圖	海東地圖	京畿誌	京畿邑誌	加平郡地圖
자연지명	25(64.1)	27(62.8)	32(62.7)	28(51.9)	30(49.2)
인문지명	14(35.9)	16(37.2)	19(37.3)	26(48.1)	31(50.8)
합계	39(100)	43(100)	51(100)	54(100)	61(100)

40) 《輿地圖》 기준 중복되는 자연지명

41) 《加平郡地圖》 (49.2%) 예외

2) 일제강점기 ~ 2021년의 자연지명

『朝鮮地誌資料』에는 총 44개의 자연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이전 자료원에 기록되지 않은 19개의 새로 조사된 지명이 나타난다. 19개의 지명 중 3개(永陽川, 元興川, 竹屯川)를 제외하고 모두 산지와 고개 지명이다.

가평군은 경춘선 개통, 청평댐 건설로 자연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와 더불어 새로 조사된 지명도 등장한다. 『한국지명유래집』에는 총 35개의 자연지명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 이전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21개의 새로 조사된 지명이 나타난다. 호명굴(虎鳴窟)은 1939년 경춘선이 개통⁴²⁾되면서 만들어진 인공굴로 외서면 마산을 통과한다. 청평호(淸平湖)는 1943년 청평댐이 완공으로 생긴 인공호수이다. 곡달산, 봉미산, 유명산, 장락산, 목빈재 고개, 설곡천은 1942년 10월 1일에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편입되면서 함께 편입된 설악면 내의 자연지명이다.

『디지털가평문화대전』에는 총 126개의 자연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이전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84개의 새로 조사된 지명이 나타난다. 84개의 지명 중 개곡천, 용추폭포, 화야산 계곡 등 53개의 지명이 하천 지명이다.

또한 조선시대 자료에는 명지봉(明芝峯), 운악산(雲岳山)으로만 기록된 것이, 오늘날에는 명지산(明智山), 명지천(明智川), 명지계곡(明智溪谷), 명지폭포(明智瀑布), 또한 운악산(雲岳山), 운악계곡(雲岳溪谷) 등으로 중심 산의 지명과 함께 계곡, 폭포 등 ‘산’이라는 자연과 함께 형성된 특징적인 지역 지명을 함께 표기한 것이다.

42) 1939년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가평군에는 외서면 마산을 통과하는 호명굴과 내서면 빗고개를 통과하는 빗고개굴, 총 2개의 인공굴이 건설되었다.

3. 지역의 정체성과 자연지명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으로 대표되는 공간과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온 문화가 축적되어 형성된다. 이는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체성은 변화하지 않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에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에 가치를 둔다.⁴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지명인 화악산과 변화하는 지명인 보납산을 통해 그 지명에 내포된 당대 사람들의 인식과 역사, 문화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화악산 :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가평군에서 변하지 않은 지명은 가평군의 조산(祖山)인 화악산(華岳山)과 가평읍의 내수(內水)인 가평천(加平川)을 비롯하여 강씨봉(姜氏峯), 운악산(雲岳山), 조종천(朝宗川)이 있다. 이 중 화악산과 운악산은 16세기에 제작된 『新增東國輿地勝覽』, 18세기에 제작된 《海東地圖》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海東地圖》 1권에 수록되어 있는 〈京畿道·忠淸道〉에는 가평군의 북쪽으로 조산인 ‘화악(華岳)’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10).⁴⁴⁾ 이 지도에는 각 도에 소속된 군현의 위치와 주요 산지, 하천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지도의 산줄기는 조선시대 자연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 산줄기에는 주요한 산지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주요 산지 지명은 조선의 명산, 군현의 진산이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산줄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4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pp.178-208

4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海東地圖》(古4709-61)



[그림 10] 《海東地圖》 <京畿道·忠清道> ‘華岳’

가평군의 조산인 화악산은 『三國史記』 이후 가평군을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 등장하는 산이다(그림 11).⁴⁵⁾ 북면 성황당 범바위 제단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추정된다(그림 12).⁴⁶⁾

화악산은 해발 1,468m로 영서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수려한 자연경관의 화악산과 그 주변의 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⁴⁷⁾ 뿐만 아니라, 대관령에 씨감자 보관소가 생기기 전까지 화악산 ‘조무락(鳥舞樂) 골’을 중심으로 씨감자를 보관하였고, 여름철 배추와 무를 재배하던 준 고랭지였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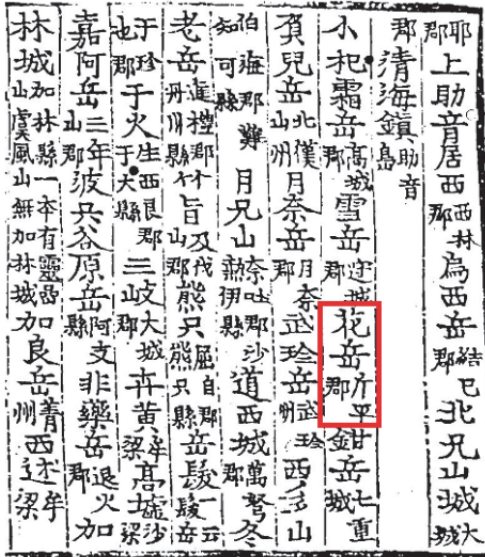
45) 『三國史記』 권 제32 잡지 제1 祭祀

46)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14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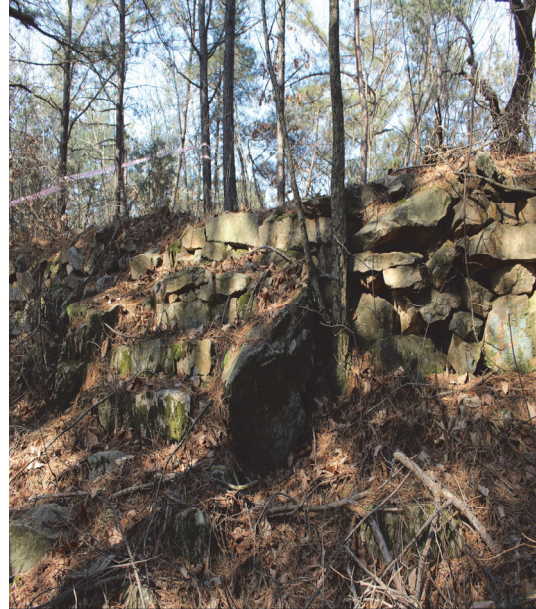
加平縣 華岳山壇在縣內平地, 引請行祭, 位版書華嶽護國之神, 請於山麓設壇, 且削護國二字。

가평현(加平縣)의 화악산(華岳山)은 단이 현내(縣內)의 평지에 있어, 이끌어 청하여 제사 지내고 있고, 위판은 화악 호국지신(華岳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산기슭에 단을 설치하고, 또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할 것.

47) 경기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현황(2019) 146,420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그림 11] 『三國史記』 小祀 花岳
斤平郡



[그림 12] 화악산 범바위 제사터

화악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같은 지명으로 불린다. 이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일종의 화석화(化石化)된 문화 경관이다. 즉, 한정된 공간에 이름을 붙여 자신의 문화를 정체화(identified)시킨 장소로 만든다.⁴⁸⁾ 이는 곧 지명을 붙이고 사용한 사람들의 지리인식체계를 보여준다. 화악산의 경우 국가의 제사처로서, 조산으로서, 고랭지 농업이 가능한 경제적 장소로서, 오늘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가평 주민들에게 특별한 장소이다.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에는 그들의 자연관과 지리 인식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의 삶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8) 가평문화원, 2000, 가평의 지명과 유래 상, pp.242.

49)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p.214.

2) 보납산 : 변화하는 정체성

화악산과 같이 화석화된 지명도 있지만, 지명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 역사적 사건, 인식체계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가평군의 경우 곡달산, 대금산, 보납산, 유명산, 은둔산, 축령산, 화야산, 도마치고개가 이에 해당한다. 그 중 보납산은 가평 지역민들의 염원, 인식체계에 영향을 받아 변화된 자연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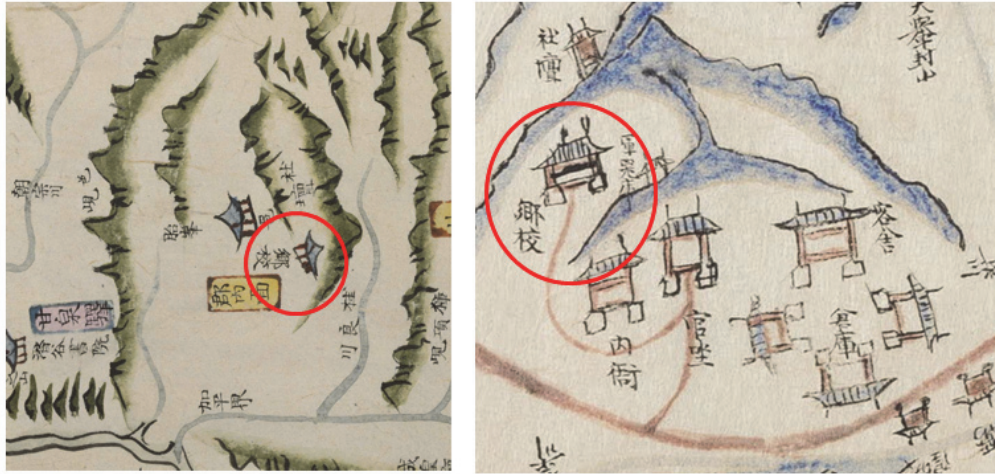
조선 초기, 가평 지역민들은 가평에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가평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가평 원주민보다 잘 적응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하였다.⁵⁰⁾ 일반적으로 타지에 와서 살게 되면 지역의 텃세나 기반이 없어 적응하기 힘든데, 실제 가평에서는 외지인들이 잘 적응하고, 심지어 원주민보다 잘 살았다. 이에 가평의 안산인 부래산을 기존의 원주민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보물(寶)을 가둔다(納).’는 의미의 보납산(寶納山)으로 개명하였다. 향교 또한 이러한 풍수적 이유로 지역민의 염원에 영향을 받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관청의 좌측에 위치하던 향교를 백호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관청의 우측으로 이전하였다. 《輿地圖》〈加平郡〉에는 향교가 관청의 좌측에 표시되어 있지만 『京畿誌』〈부도〉에는 현재 향교의 위치인, 관청의 우측에 위치한다(그림 13).

이후에 안산인 보납산의 지명 변경과 향교 이전이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가평 지역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문신으로 이인좌의 난 때 공을 세워 인평군에 봉해진 이보혁(李普赫, 1684~1762),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나기호(羅基瑚, 1895~1990), 이화여대 제 1회 졸업생이자 독립운동가인 신마실라(申麻實羅, 1892~1965), 독립운동가 신숙(申肅, 1885~1967)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은

50) “석봉(石峯) 한호(韓濩), 가평에 꽃피다.”, 가평소식지, 2017년 3월호, p.7.

이것이 보납산의 지명 변경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후 가평의 안산으로, 도로명주소에 사용되고, 가평 읍내의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교가에 보납산이 등장하는 등 현재까지도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13] 《輿地圖》 〈加平郡〉 과 『京畿誌』 〈부도〉 의 향교 위치 비교

IV. 조선 ~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

가평군의 지명은 가평의 역사와 함께 변화하였고, 이는 가평군의 행정지명과 자연지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오늘날까지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를 해석하였다. 또한, 가평군에 나타나는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1. 18세기 ~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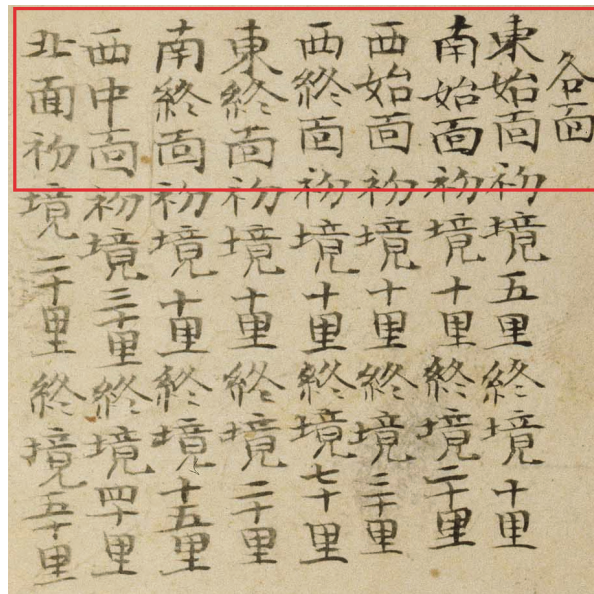
1) 가평군의 면(面) 지명

18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가평군은 5면(郡內面, 北面, 南面, 西面, 朝宗面)체제이며(그림 13), 설악면은 당시 양근군(楊根郡) 북면(北面)이었다. 군내면(郡內面)은 읍치(邑治)가 위치했던 가평군의 중심지역이다. 조종면은 군(郡)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본래 조종현(朝宗縣)이 1396년(태조 5)에 가평군에 편입되면서 조종면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전기에 면리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면명(面名)은 동면(東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과 같이 읍치를 중심으로 방위명(方位名)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¹⁾ 가평군 또한 읍치를 기준으로 북면, 남면, 서면이 있으며, 가평군의 경우 읍치가 속해 있는 군내면이 동쪽에 위

51) 김순배, 2004, “地名 變遷의 地域的 要因 : 16세기 이후 大田 지방의 漢字 地名을 사례로”, 문화 역사 지리 16(3), pp.73-74.

치하여 동면(東面)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방위에 의해 면명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양근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북면, 서종면, 동종면 등 방위로 면명을 정했다(그림 14).



[그림 14] 《輿地圖》 〈양근군지지〉 ‘各面’

2) 인구증가와 면(面) 증가

조선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과 기근, 전염병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일정 기간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가 감소하였다.⁵²⁾ 18세기에 가평군의 인구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

5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pp.350-353.

조선 전기 읍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획된 방위면제(方位面制)에서 조선 후기에는 인구증가, 토지 확대, 촌락 분화 등으로 촌락지명이 승계된 면 지명이 등장한다.⁵³⁾ 가평군과 같이 규모가 작은 군현의 경우 조선 전기의 방위면 체제가 유지되거나, 본래 있던 면(面)이 분화하는 등 면 수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⁵⁴⁾ 18세기 중엽에 가평군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되었다 <표 7> .

<표 6> 18세기 호(戶) 변화

	輿地圖	輿地圖書	戶口總數	京畿誌	京畿邑誌
민호	2034	2391	-	-	-
원호	-	-	1922	2023	2744

* 민호(民戶): 보통 백성(百姓)의 살림집, 원호(元戶): 본디 호적에 오른 민호(民戶)

<표 7> 18세기 중엽 가평군 인구수

	호(戶)	남자	여자
군내면	568	898	725
북면	400	554	438
남면	255	386	252
서면	530	934	829
조종면	638	1028	863
총합	2391	3800	3107

* 자료 『輿地圖書』

이후 19세기 중반에 서면이 내서면(內西面)과 외서면(外西面)으로 분리되었다. 빗고개를 기준으로 읍치와 가까운 동쪽을 내서면으로, 먼 서쪽을 외서면으로 명명하였다. 외서면은 군내면, 조종면, 양근군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또한 18세기에 서면에는 9개의 동리가 있었는데, 19세기 중반에 내서면은 6개의 동리, 외서면은 17의 동리로 증가하였다.⁵⁵⁾ 특히 북한강변에 위치한

53)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p.284

54)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55) 18세기 『輿地圖書』, 19세기 『京畿邑誌』

외서면의 동리가 대폭 증가 하였다. 이 중 험천동(險川洞), 청평천(淸平川), 잠곡동(潛谷洞)과 같은 하천과 관련된 지명이 증가 한 것으로 보아, 북한강이 한성과의 중요 연결통로로 이용되어 하천 주변 마을이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강 수로를 통해 운반되던 뗏목 경유지인 외서면 청평천(淸平川)마을⁵⁶⁾에는 뗏목꾼과 수로를 이용하는 상인들로 인해 주막, 여숙, 마구집과 같은 시설이 있었다.⁵⁷⁾ 현재까지도 ‘주막거리’와 같은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⁸⁾

따라서 서면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로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에 제작된 『加平邑誌(京畿道)』에는 북면이 상북면과 하북면으로 분리되어 기록되었다. 따라서 북면은 1871년에서 1899년 사이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북면의 대부분은 험한 산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져서, 주민 대부분은 삼임업과 화전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었고, 18세기까지는 지역 면적에 비해 정착민이 적었다.⁵⁹⁾

19세기 후반에는 세도정치와 관리들의 폭정으로 삼정이 문란해져 유랑민이 증가하였다.⁶⁰⁾ 한성과 가까운 가평군 북면은 유랑민이 숨어들어 살기 좋은 조건이었다. 또한 신앙의 꺾박을 피해 산 속으로 숨어드는 천주교도와 동학교도가 산이 깊은 북면에 정착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증가하였다.⁶¹⁾ 이러한 이유로, 18세기보다 19세기 중엽에 북면에 험한 산지 지역인 백둔리, 도대리, 화악리, 목동리에 인구가 증가하여 상북면(제령리, 백둔리, 도대리)과 하북면(이곡리, 화악리, 소법리, 상목동, 하목동)으로 분리되었다.

56) 현재 가평군 청평면 청평3리 지역

57) 신현정, 1994, 가평의 자연과 역사, 피플뱅크, p.185.

58) 강호철, 2015, 화악산인의 가평군지, 강길산, p.563.

59) 가평문화원, 2001, 가평의 지명과 유래, pp.210-281.

6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p.372

61) 북면 백둔리 천주교 공소터(현재 백둔리 연인산 도립공원 주차장), 북면 화악리 천도교도 집단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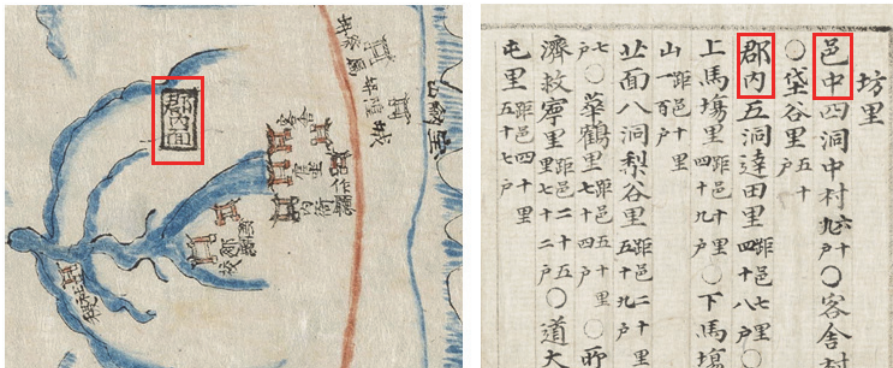
3) 지도에서 지명 표기 축약

1871년에 편찬된 『京畿邑誌』 「加平邑誌」 ‘방리(坊里)’에는 군내면(郡內面)이 읍중(邑中)과 군내(郡內)로 나뉘 기록되어 있다. 읍중(邑中)은 조선시대 감영(監營)외의 관아(주·부·군·현 등)가 있던 마을이다. 가평군 읍중에는 중촌(中村), 객사촌(客舍村), 향청촌(鄉廳村), 대곡리(垔谷里)가 속했다. 중촌, 객사촌, 향청촌은 향교리(鄉校里)가 나뉘진 것이다. 읍중은 조선시대 행정기관이 있던 마을로 관리를 비롯한 양반, 중인 계층이 거주하여 군내면에 속했지만 따로 구분하여 읍중으로 기록하였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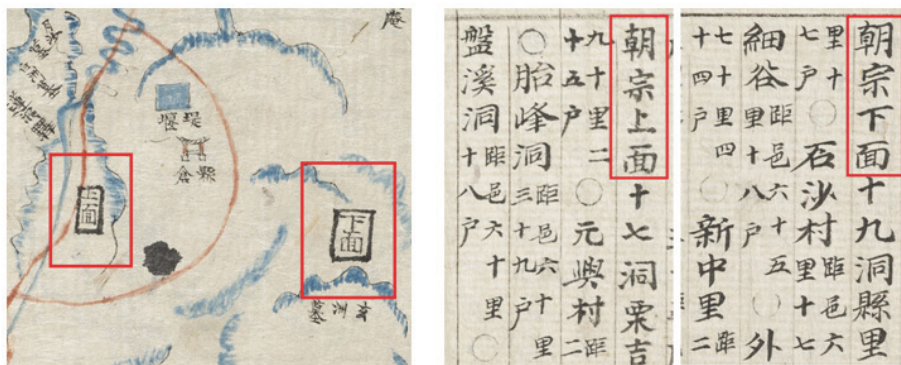
또한 『京畿邑誌』 「加平邑誌」 ‘坊里’에는 조종상면(朝宗上面)과 조종하면(朝宗下面)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京畿邑誌』 〈幅員全圖〉에는 조종이 생략된 상면과 하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리지 안에 수록되어 있는 부도는 단독으로 제작된 군현지도보다 지리정보를 수록하는데 제약이 지명 생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도에는 조종(朝宗)을 생략하고 상면(上面)과 하면(下面)으로 표기하고, 지리지에서 이를 보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6).

그러나 이후 등장하는 사료에는 지도뿐만 아니라 지리지에도 조종이 생략된 상면과 하면으로 나타난다(그림 17). 조종(朝宗)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제후(諸侯)가 봄과 여름에 천자(天子)를 알현하던 일을 말한다. 조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후국을 나타내기 때문에,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제후국을 나타내는 조종이라는 단어를 지명에서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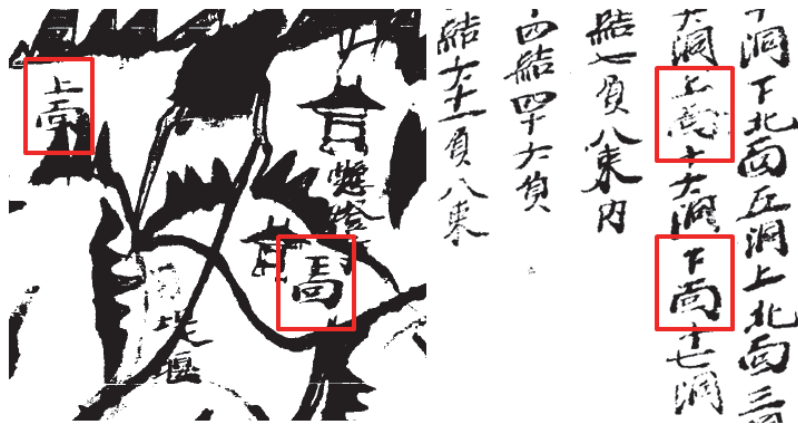
62) 강호철, 2015, 화악산인의 가평군지, 강길산, p.386.



[그림 15] 『京畿邑誌』 〈幅員全圖〉 군내면과 ‘坊里’ 읍증·군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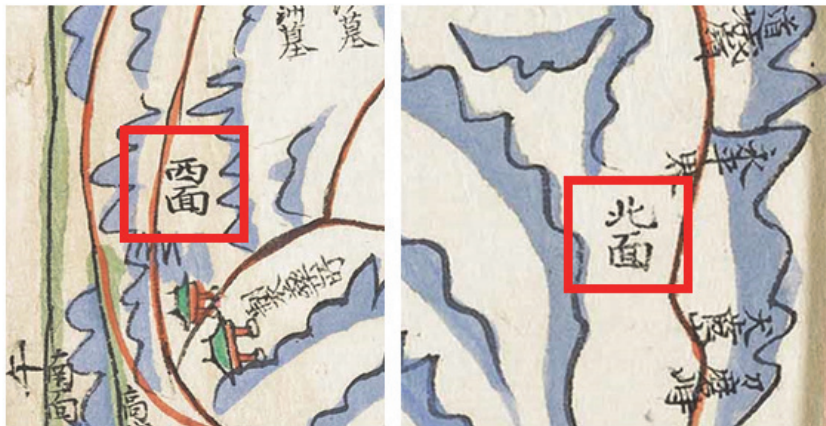


[그림 16] 『京畿邑誌』 〈幅員全圖〉 상면·하면과 ‘坊里’ 조종상면·조종하면



[그림 17] 『加平邑誌(京畿道)』 상면·하면

1899년에 편찬된 『加平郡邑誌成冊』에는 외서면과 내서면이 서면(西面)으로 통합되어 표기되어 있다(그림 18). 그러나 같은 1899년에 편찬된 『加平邑誌(京畿道)』에서는 외서면·내서면으로 나타나며, 북면 또한 상북면·하북면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9). 이는 1914년 4월 1일에 면의 명칭 및 구역 개편으로 상북면과 하북면이 북면으로 통합되고, 내서면이 군내면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加平邑誌(京畿道)』에 행정지명이 상세히 반영되어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加平郡邑誌成冊』 서면과 북면



[그림 19] 『加平邑誌(京畿道)』 외서면·내서면과 상북면·하북면

2. 19세기 후반 ~ 일제강점기

1) 19세기 후반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가평군

제 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조직 및 칙령⁶³⁾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전국을 23부(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목(牧)·부(府)·군(郡)·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서윤(庶尹)·판관(判官)·현령(縣令)·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으로,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로 통합하였다.

이때 가평군은 23부(部) 중 한성부에 군(郡)으로 속하였다가, 동년 7월 19일 포천군에 병합되었다.⁶⁴⁾ 그러나 신설된 23부제는 오래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체제를 인위적으로 과대 분할하여 실제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3부제의 지방행정구역이 1896년 13도제로 개편되었고, 가평군은 다시 포천군에서 경기도 가평군으로 분리되었다.⁶⁵⁾

1895년에서 1896년까지, 단 1년 2개월 사이에 일어난 행정구역 개편은 가평군의 경우 군의 존폐(存廢)가 결정되었던 개편으로 가평군 지방행정구역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63) 칙령(勅令) 제 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년) 5월 26일 병신

64) 칙령(勅令) 제144호 가평군을 포천군에 합병하는 안건(加平郡抱川郡合併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년) 7월 19일 정사

65) 칙령(勅令) 제35호,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양력

2)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가평군

조선시대 가평군은 방위면 체제의 행정지명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연지명 또한 큰 변화 없이 지리지와 고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1915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내의 읍면, 동리가 통폐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의 편입으로 가평군 행정구역 경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제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⁶⁶⁾ 주요 내용은 면(面)·사(社)·방(坊)·부(部)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면(面)으로 통일하고, 이를 기초적 행정단위로 공식화였다.

1914년에는 부(府)·군(郡)·면(面)의 통폐합으로 지방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종전의 13도 12부 317군을 13도 12부 220군으로 개편하였다. 도(道)와 부군(府郡)의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1일부터, 면리동의 경우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분적인 개편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가평군은 1914년 4월 1일에 내서면이 군내면에 편입되고, 상북면, 하북면이 북면으로 통합되었다.⁶⁷⁾ 또한, 1915년 11월 15일에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57호>에 따라 가평군의 84개의 동·리가 46개의 리로 통폐합되었다.⁶⁸⁾ 또한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장천리(長川里)가 외서면 입석리(立石里)에 통합되었고, 영평군(永平郡) 이동면(二東面) 적목리(赤木里)가 북면에 편입되어 가평군은 6면 47리가 되었다.

66) 칙령(勅令) 제354호 조선 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勅令) 제357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순종실록부록 1권 순종 3년(1910년) 9월 30일 양력

67) 면의 명칭 및 구역(1914. 4. 1.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중 '가평군'. 『조선총독부 관보』(1914년 3월 13일)

68)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1915. 11. 15.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57호). 『조선총독부 관보』(1915년 11월 15일)

3)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평군

(1) 경춘선 개통과 지명의 생성

1939년에 개통된 경춘선은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가평군과 서울의 시간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1939년 조선철도국에서 발행한 『조선관광 신춘 제2호』 중 「경춘 철도 시승기」에는 화야산(禾也山)을 비롯한 청평댐 건설 이전의 북한강의 모습을 묘사하며 광고하고 있다.⁶⁹⁾ 2009년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은 가평군 운송수단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경춘선이 건설됨에 따라 가평군을 통과하는 구간 중 외서면 마산(馬山)과 내서면 빛고개(色峴)에 호명굴(虎鳴窟)과 빛고개굴(色峴窟)이 건설되었다. (그림 20)에서 1은 호명굴, 2와 3은 호명터널로 기록되어 있다. 호명굴에서 호명터널로 지명이 변화된 것은 근대로 오면서 ‘굴(窟)’이라는 한자 대신 ‘터널(tunnel)’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지명 사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 건설되었던 빛고개굴 또한 지명 사용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색현터널(色峴-tunnel)’로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호명굴은 호명산(虎鳴山) 줄기인 마산에 위치하여 지어진 지명이다. 이를 『한국지명유래집』에서는 ‘호랑이가 이곳에서 새끼를 쳤다고 전해진다’라고 서술되었으며, 자연지명으로 분류되었다.⁷⁰⁾ 『한국지명유래집』은 지명에 권위 있는 자료이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래 호명의 유래는 ‘범-울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북한강의 협곡 중 물소리가 범의 울음소리를 내는 지형이 있었는데, 이를 지역 사람들은 ‘범-울이’ 또는 한자로 호명(虎鳴), 호후판(虎吼阪)이라 하였다. 이후 이 협곡 주

69) 최경식, 2012.02.27., “일본인 쓴 ‘춘천찬가’... 아픔의 역사 속 빛나는 절경”, 강원도민일보

70)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p.465.

변의 마을을 호명리(虎鳴里)라 하였고, 마을 뒷산을 호명산(虎鳴山)이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호명굴의 호명은 실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물소리가 호랑이 울음소리 같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명과 지명 유래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 20] 호명굴

(2) 청평댐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및 지명 변화

설악면은 고려 말 미원장(迷原莊)에서 미원현(迷原縣)으로, 조선 건국 후 양근군 속현(屬縣)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양근군 북면(北面)으로 개칭되었다가 조선후기 으로 분리되었다. 1915년에 북상도면(北上道面)·북하도면(北下道面)이 설악면(雪岳面)으로 통합되었고, 1915년 35개의 마을이 14개의 법정리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1939년 8월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가평군 남면의 대부분과 양평군 설악면 일부가 수몰되었고, 이에 1942년에 가평군 남면은 폐지되고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되었다.⁷¹⁾

청평댐이 건설되어 북한강으로 서울까지 연결되는 수로(水路)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또한 북한강 유역의 생활권이 대폭 축소되었다.⁷²⁾ 청평댐 건설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청평댐 '공도교'가 생겼다(그림 21). 이로 인해, 설악면은 가평군과 육로 교통로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설악면은 양평군과 붙어있지만, 마유산·소구니산·중미산·삼태봉·통방산 등 경계가 되는 산줄기가 험난하여 설악면과 양평읍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산줄기 사이로 난 소로(小路)는 농다치, 절고개, 배치 등 험한 고개를 통해야만했다. 이에 반해 청평댐 '공도교'는 설악면을 가평군과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로(大路)를 제공하였고, 설악면에서 청평을 통해 서울, 가평, 춘천을 쉽게 왕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평댐 건설로 1942년에 담수가 시작되자 남면의 대부분 지역이 청평호에 잠겼다(그림 22). 이후 사람들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옮겨가 마을을 이뤘다. 1942년 10월 1일에 이화리, 금대리, 북장리는 가평면에, 고성리, 호

71) 면의 명칭 및 구역 일부개정(1942. 10. 1. 시행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6호). 『조선총독부 관보』 (1942년 10월 23일)

72) 양보경, 홍금수(2002), “양평지방 전통취락의 입지와 유형”, 응용지리(23), p.64

명리는 외서면에 편입되었고 남면은 폐지되었다. 새로운 마을이 건설되면서 현재 수몰 이전의 마을 전통과 북한강 주변의 지명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그림 21] 청평댐 공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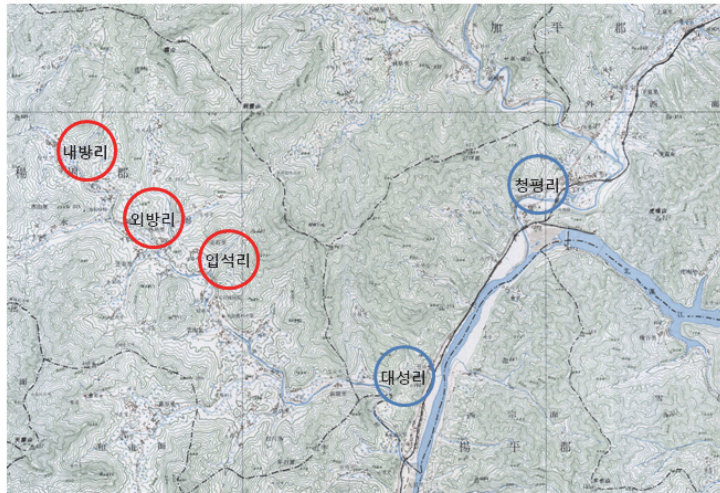


[그림 22] 청평댐과 청평호

3. 광복 ~ 2021년

1) 1960 ~ 1970년대 행정구역 변화

1963년 이전까지 가평군 외서면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는 구운천을 경계로 양주군과 접한 지역이었다.⁷³⁾ 행정구역상 가평군 외서면에 속했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은 양주군 화도면소재지가 있던 마석우리였다. 외서면소재인 청평리까지 가려면 충령산, 은두산과 같은 험한 산을 넘거나 대성리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업무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자 1963년 1월 1일에 가평군 외서면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 양주군 진접면 수산리, 양주군 화도면 지둔리, 운수리, 송천리를 병합하여 양주군 수동면을 신설하였다.⁷⁴⁾ 따라서 외서면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는 양주군 관할이 되었다(그림 23).



[그림 23] 양주군 수동면과 가평군 외서면 일대
자료 : 국립건설연구소 1963년 1:50,000 지형도

73)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을 통과하여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와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의 경계인 하천

74)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1963. 1. 1. 시행 법률 제1176호). 관보 제3301호 (1962년 11월 21일)

이천리와 삼회리는 양평군 서종면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면 소재지와 교통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천리는 이치와 솔고개를 통한 설악면소재지인 신천리와의 거리가 양평군 서종면소재지인 수입리보다 교통이 편리하였다. 삼회리는 팔당댐 건설로 북한강변에 있던 삼회리와 서종면소재지인 수입리의 도로가 수몰되면서 험준한 야밀고개를 넘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이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청평댐 공도교와 원대성나루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삼회리 주민들의 생활권은 양평군 서종면에서 가평군 외서면으로 변화하였다. 변화된 생활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7월 1일에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 설악면에 편입되면서 이천리로 개칭되었고,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에 편입되었다.⁷⁵⁾ 같은 날,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거 1군 1읍 규정에 의거하여 가평면(加平面)이 가평읍으로 승격되었다.⁷⁶⁾

75)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73. 7. 1. 시행 대통령령 제6542호). 관보 제 6396호(1973년 3월 12일)

76) 읍 설치에 관한 규정(1973. 7. 1. 시행 대통령령 제6543호). 관보 제6396호(1973년 3월 12일)

2) 지방자치제 시대의 지명 개정

1989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이어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 행정에 지방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고,⁷⁷⁾ 이는 지명 개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1) 청평면

본래 가평군의 서쪽에 위치한 서면(西面)은 19세기 중엽에 외서면과 내서면으로 분리되었고, 이 중 외서면이 현재의 청평면이 되었다. 1939년에 개통된 경춘선과 1943년 완공된 청평댐로 인해 외서면 청평리 지역이 크게 변화되었다(그림 24). 경춘선 개통으로 교통이 발달하여, 청평호 일대에 레저스포츠 산업이 번성하였다. 이로 인해 청평리와 청평리 일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청평리는 외서면을 대표하는 지명이 되었다. 2004년 12월 1일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서면의 대표성을 띠는 청평리의 청평을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⁸⁾

77) 이승중, 유희숙, 1994, 地方化時代의 住民參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2-11.

78)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04. 11. 2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 2004년 12월 1일 시행됨.



[그림 24] 2003년 경춘선 청평역
*2010년 경춘선복선전철 개통 이후 철거됨.

(2) 연인산

연인산의 원래 지명은 우목봉(또는 월출봉)이었으나, 1999년에 가평군지명위원회 지명공모를 통해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의 연인산(戀人山)으로 지명을 바꾸었다.⁷⁹⁾ 연인산은 청평면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명공모와 같은 새로운 지명 변경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변경된 지명이다.

79) 경기농정 통합 연인산도립공원 소개. <http://farm.gg.go.kr/sigt/116>

3) 일본식 지명 정비의 명암

(1) 조종면

가평군 하면은 방위개념에 따라 단순히 명명된 행정구역명칭을 지역의 이미지 및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⁸⁰⁾ 2015년 12월 16일 가평군 조종면(朝宗面)으로 변경되었다.⁸¹⁾ 가평군은 하면이라는 명칭이 갖는 아래, 밑, 빈곤이라는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 1914년 일제에 의해 바뀐 하면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였던 조종현의 명칭을 되찾고자 개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달리 행정구역 개편은 1914년 일제강점기 때가 아닌 1899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미 1789년에 제작된 『戶口總數』에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되었고, 1899년에 제작된 『加平邑誌(京畿道)』에는 조종이라는 지명 없이, 상면과 하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일제에 빼앗겼던 조종면의 명칭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조종(朝宗)을 면명칭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래 상면과 하면은 조종면이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된 것으로, 조종천(朝宗川)의 서(西), 동(東)이라는 지리적 정보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하면이 조종면으로 변경되어, 상면은 지명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80) 가평군 조종면주민센터 우리마을소개 마을의 역사/유래
(<https://www.gp.go.kr/ha/index.do>)

81)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58호로 개정된 것). 2015년 12월 16일 시행됨.

(2) 원흥리

1915년 일제의 획일적인 지명 통폐합 과정에서 상면 태봉동⁸²⁾과 원흥리가 태봉리(胎封里)가 되었다. 원흥리의 기록은 『京畿邑誌』에서 조종상면 원흥촌(元興村)으로 나타난다. 호(戶)수는 27호(戶)로 조종상면에서 5번째로 많았으며, 1915년 지명 개편 이후 법정리 중 봉수리, 연하리, 향사리, 덕현리보다도 호(戶) 수가 많았다 <표 8>. 또한, 지리적으로 원흥촌은 지도상으로는 태봉동과 붙어있지만, 개주산 골짜기에 위치하여 직선거리는 산을 넘어야 했고, 실제 길은 산 들레를 따라 돌아가야 함으로 한 마을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6년 7월 25일에 태봉리 행정리 중 태봉 2리가 원흥리(元興里)로 분리되었다.⁸³⁾

<표 8> 『京畿邑誌』 조종상면 호(戶)

조종상면			
동·리(洞里)	호(戶)	동·리(洞里)	호(戶)
울길리	93	천곡	11
봉수리	25	평촌	21
원흥촌	27	행현	41
상동	20	축령리	18
태봉동	39	임초리	40
연하리	22	덕현리	12
번계동	18	조가대	20
향사리	17	간성대	7
미가동	7	총 호(戶) 합 : 438	

82) 일부 임초리로 편입됨.

83) 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2016 .7. 2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58호로 개정된 것). 2016년 7월 25일 시행됨.

(3) 운악리

조종면 하판리는 2016년 7월 15일에 마을 주민들이 일제 잔재를 없애고 마을 서쪽에 위치한 운악산을 품은 마을이라는 의미의 운악리(雲岳里)로 바뀌 달라고 군(郡)에 제안하여 운악리로 개칭되었다.⁸⁴⁾

하판리는 판미리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판미리는 『輿地圖書』에 기록되었으며, 1871년에 제작된 『京畿邑誌』 「加平邑誌」에는 중판미리, 정수동, 행랑촌, 구이목, 하판미리 5개 마을로 분리되었다. 1871년과 1915년 사이에 구이목, 정수동, 행랑말이 상판리, 중판미리는 중판리, 하판미리는 하판리가 되었다. 이후 1915년 11월 15일에 상판리는 일부 하판리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상판리가 되었으며, 상판리 일부, 중판리, 신중리 일부, 하판리를 통합하여 하판리가 되었다.

하판리는 일본에 의해 개명된 우리 고유의 지명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미리가 커지면서 분할되어 상판미리, 중판미리, 하판미리가 되었다. 단순히 상판리 아래 있는 마을이어서 하판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판리는 판미리가 그 지명의 어원이다.

84) 2016년 7월 25일 시행 <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58호] 부칙. 2016.7.25.>

4.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

가평군은 고구려의 근평(斤平) 또는 병평군(井平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가평(嘉平)으로 바꾸어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가평(加平)으로도 불렀고, 조선시대에는 가평(嘉平)과 가평(加平)이 혼용되었다. 고려시대인 1018년(현종 9)에 춘주(춘천)에 이속되었다. 조선시대인 1396년(태조 5)에 감무(監務)가 있었고, 1413년(태종 13)에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옮겨지면서 현감(縣監)이 부임하였다. 1507년(중종 2)에 중종의 태가 봉안된 곳이어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1697년(숙종 23)에 이영창 사건으로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707년(숙종 33)에 다시 군으로 복구되었다. 1888년(고종 25)에 춘천유수부⁸⁵⁾에 편입되었다. 1895년(고종 32) 5월 26일에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되어 가평군(加平郡)은 한성부(漢城府)에 속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지방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가평군은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에 지방제도가 다시 13도제로 개편되어 경기도 가평군으로 복구되었다. 7면을 계속 유지하다가 1899년 이전에 북면이 상북면(上北面)과 하북면(下北面)으로 분리되어 8면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에 면의 명칭 및 구역 개편에 따라 상북면과 하북면이 북면으로 통합되었고, 내서면이 군내면에 편입되어 6면이 되었다. 1915년 11월 15일에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 개편으로 84개의 동·리가 46개의 리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장천리(長川里)가 외서면 입석리(立石里)에 통합되었고, 영평군(永平郡) 이동면(二東面) 적목리(赤木理)가 북면에 편입되어 가평군은 6면 47리가 되었다.

1938년 1월 20일에 군내면(郡內面)이 가평면(加平面)으로 개칭되었다.

1942년 10월 1일에 양평군(楊平郡)의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 설악면이

85) 1888년(고종 25)에 강원도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가 춘천유수부(春川留守府)로 승격되었으며, 기전(畿甸)에 이속시켰다.

되었다. 같은 날, 남면의 이화리·금대리·산유리·복장리는 군내면으로, 고성리·호명리는 외서면으로 편입되었고, 남면은 폐지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 외서면의 입석리, 내방리, 외방리가 양주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외서면에 편입되었고,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중 일부가 설악면에 이천리로 개칭되어 편입되었다. 같은 날, 가평면이 가평읍으로 승격하였다.

2004년 12월 1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외서면이 청평면(淸平面)으로 개칭되었다.

2015년 12월 16일에 하면이 조종면으로 개칭되었다.

2016년 7월 25일에 상면 태봉리 중 태봉 1리는 태봉리로, 태봉 2리는 원흥리로 분리되었고, 같은 날 조종면 하판리가 운악리로 개칭되었다.

2021년 현재 가평군은 1읍(가평읍), 5면(조종면, 상면, 청평면, 북면, 설악면), 61리를 관할하고 있다.

V.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가평군 행정구역 변천의 지도화

문헌 연구와 현지답사를 통해 제작한 가평군 지명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을 지도화하였다. 지도 제작에 사용한 GIS 소프트웨어는 QGIS(ver3.16.13)이며, 2021년 법정리 경계⁸⁶⁾를 기준으로 18세기부터 현재까지 가평군의 행정구역을 복원하였다. 2021년 법정리 경계를 기준으로 복원하여 '1915년 법정리 개정'⁸⁷⁾ 이전의 가평군 동·리의 경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도 복원은 법정리(동·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및 지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료를 선정하였다. 1760년은 『輿地圖書』, 1789년은 『戶口總數』, 1871년은 『京畿邑誌』, 1899년은 『加平邑誌(京畿道)』를 바탕으로 지도를 복원하였다. 1914년·1915년·1938년·1942년은 『조선총독부 관보』, 1963년·1973년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보』, 2004년·2015년·2016년은 <경기도 가평군 조례>에서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법령 및 부칙을 바탕으로 지도를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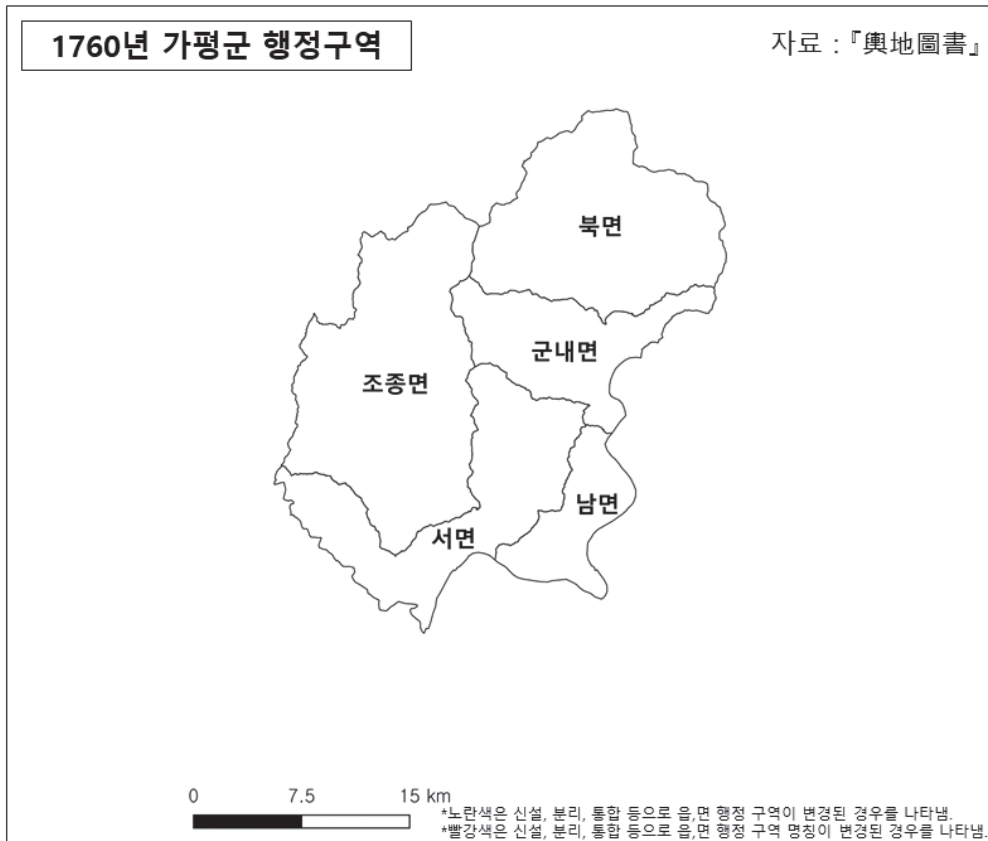
86)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마켓-행정구역_리(법정동), <http://data.nsd.go.kr/dataset/12719>

87) 1915년 11월 15일 시행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57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11월 15일)

1. 조선시대 가평군 행정구역

1) 1760년 가평군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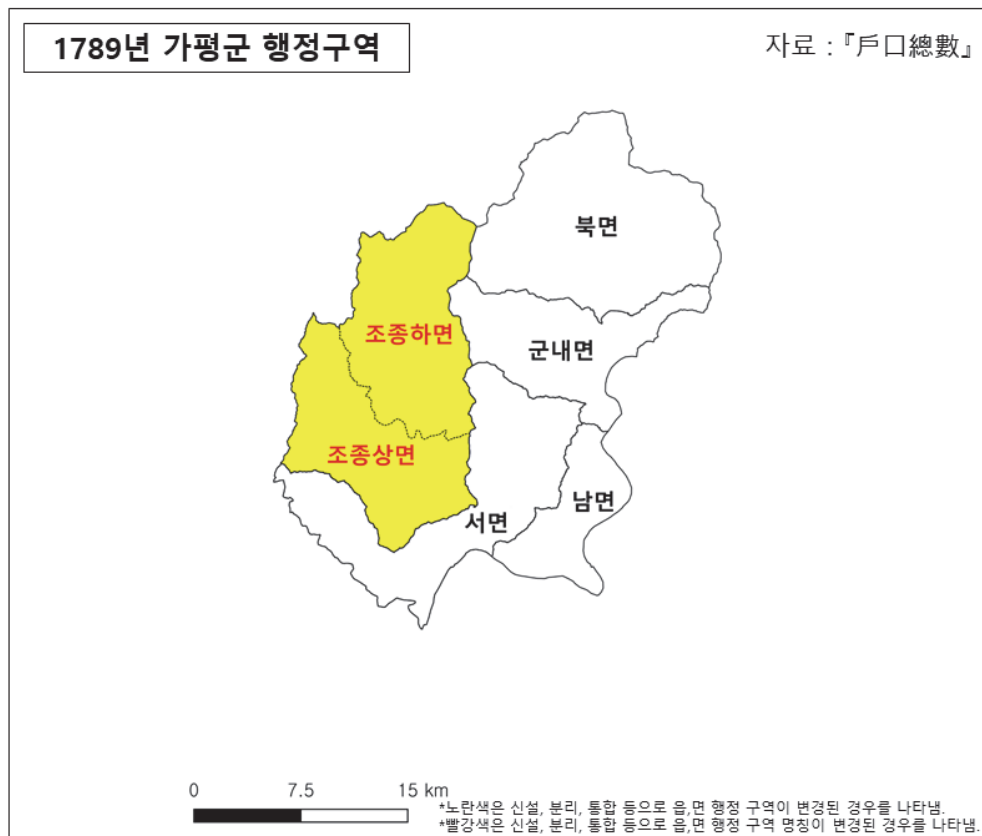
1760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읍치가 위치한 군내면(郡內面), 조종현이 군으로 편입되면서 개칭된 조종면(朝宗面)과 가평군 읍치를 중심으로 방위에 의해 명명된 서면(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이었다. 다른 군현과 달리 동면이 없는 것은 군내면이 군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그림 25).



[그림 25] 1760년 가평군 행정구역

2) 1789년 가평군 행정구역

18세기 인구 증가와 농업의 발달로 면(面)이 분리되었다. 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조종면이 조종상면(朝宗上面)과 조종하면(朝宗下面)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1789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군내면, 조종상면, 조종하면, 서면, 남면, 북면이었다(그림 26).



[그림 26] 1789년 가평군 행정구역

3) 1871년 가평군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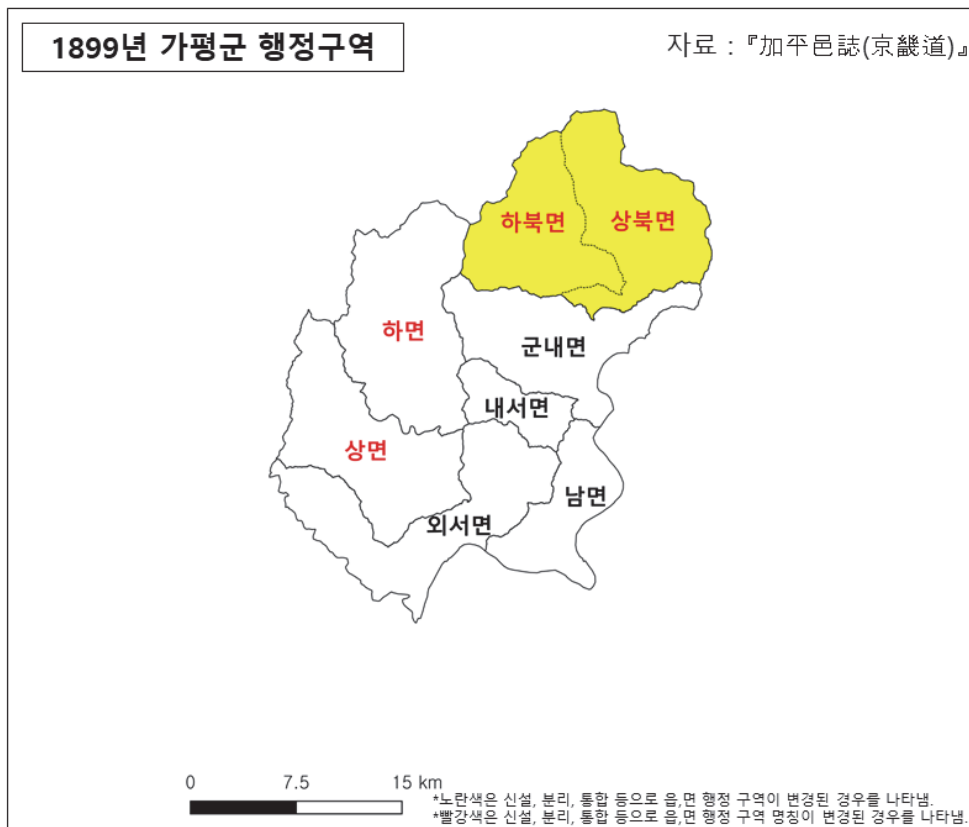
19세기 중반에 한성과의 수로 교통이 발달하여 인구가 증가한 서면이 빛 고개를 중심으로 내서면(內西面)과 외서면(外西面)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871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군내면, 조종상면, 조종하면, 외서면, 내서면, 남면, 북면이었다(그림 27).



[그림 27] 1871년 가평군 행정구역

4) 1899년 가평군 행정구역

조선 정부의 천주교도의 박해로 많은 종교인들이 산이 많은 가평으로 이주해왔다. 삼정문란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산이 많은 가평군으로 숨어들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면이 상북면(上北面)과 하북면(下北面)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은 고유 지명인 조종이 사라지고 상면(上面)과 하면(下面)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899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군내면, 상면, 하면, 외서면, 내서면, 남면, 상북면, 하북면이었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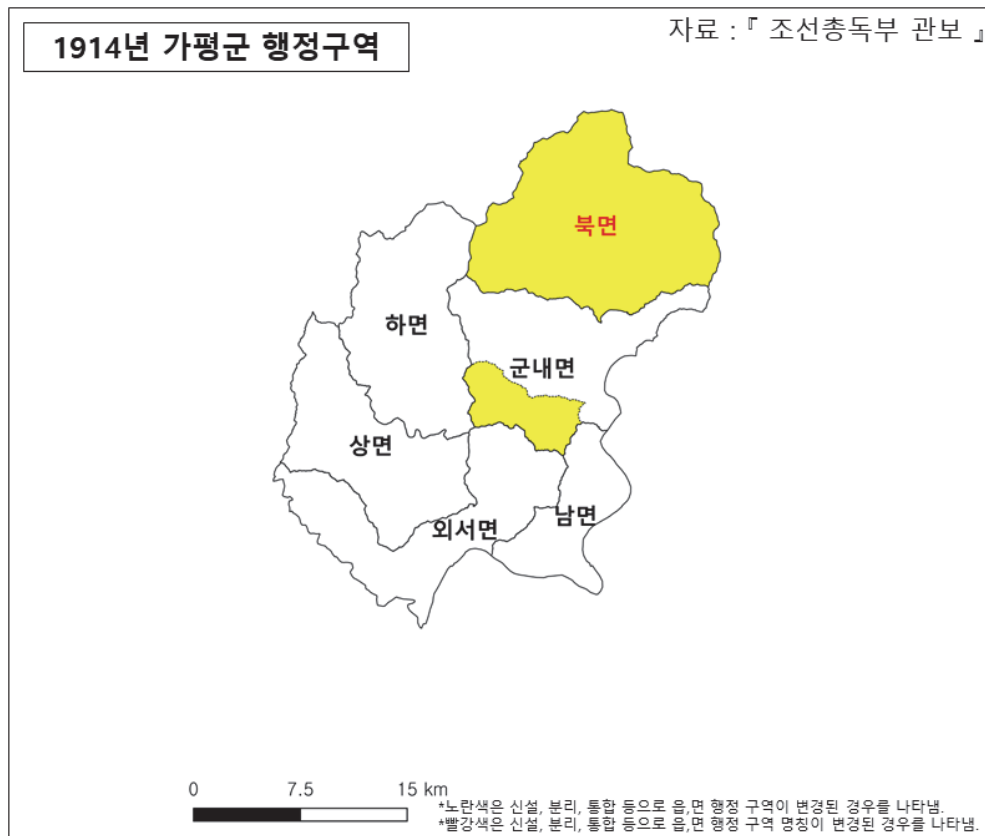


[그림 28] 1899년 가평군 행정구역

2. 일제강점기 가평군 행정구역

1) 1914년 가평군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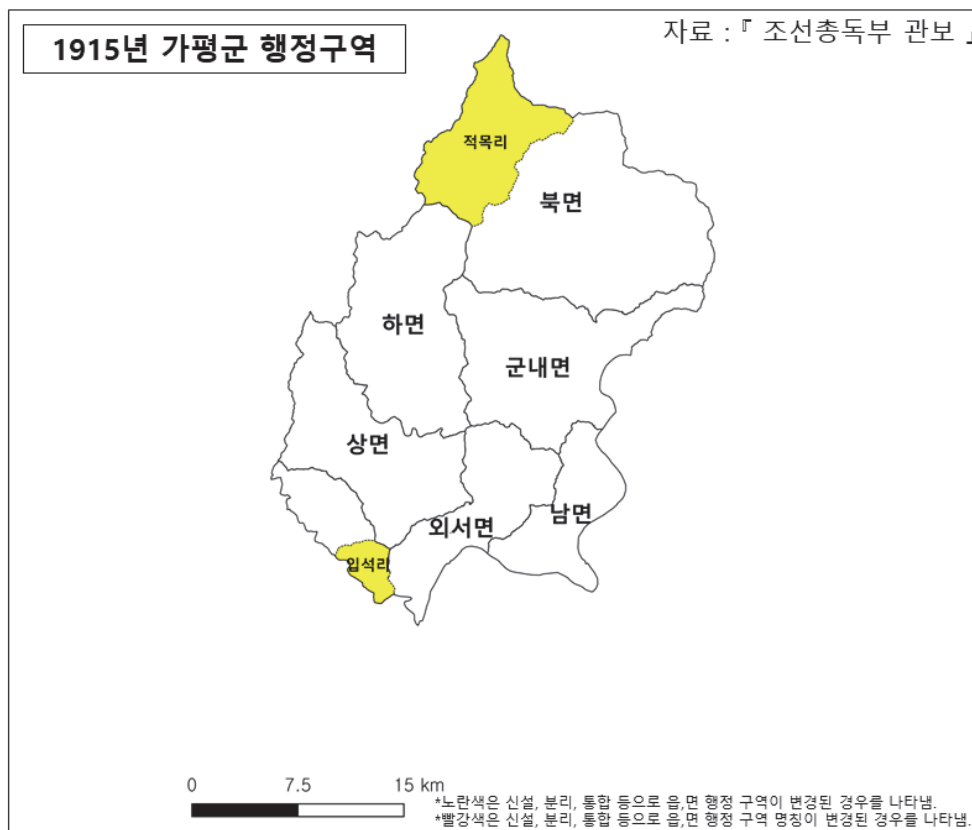
1914년 4월 1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면의 명칭 및 구역이 조정되었다. 내서면이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상북면과 하북면이 북면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1914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군내면, 상면, 하면, 외서면, 남면, 북면이었다(그림 29).



[그림 29] 1914년 가평군 행정구역

2) 1915년 가평군 행정구역

1915년 11월 15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57호>에 의해 가평군 면내 동·리의 명칭과 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다. 84개의 동리가 46개의 법정리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양주군 화도면 장천리(長川里)가 입석리(立石里)에 통합되었고,88) 영평군 이동면 적목리(赤木里)가 가평군 북면에 편입되었다. 1915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6면 47리였다(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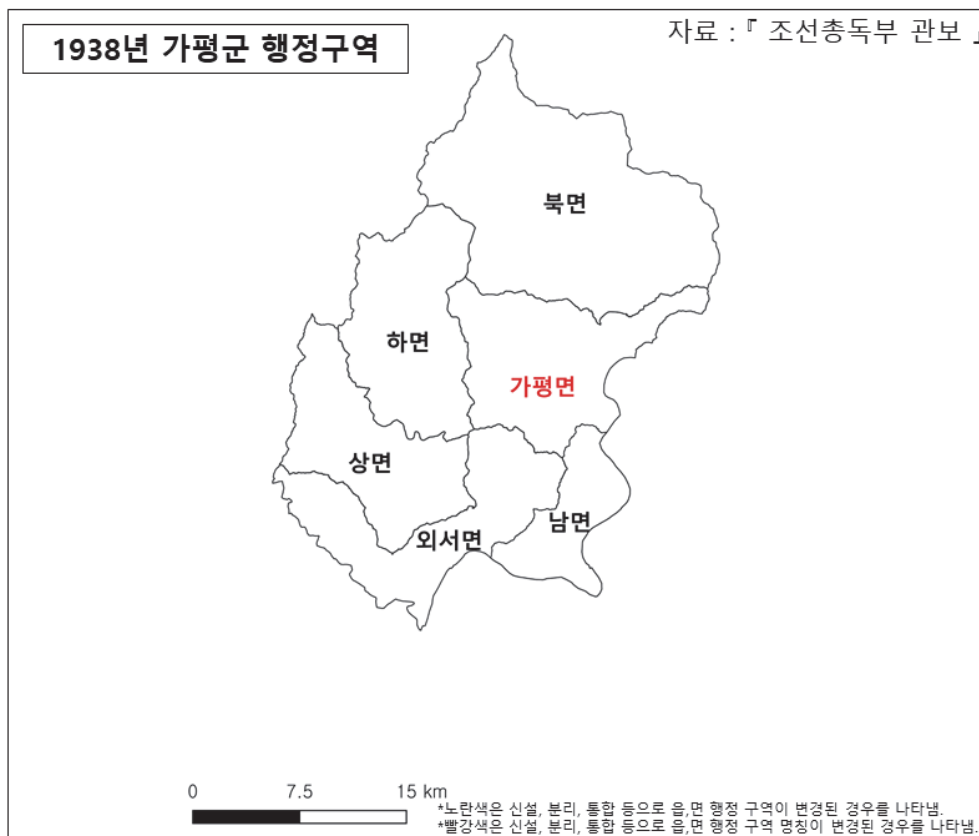


[그림 30] 1915년 가평군 행정구역

88) 2021년 법정리 경계를 기준으로 복원하여 장천리 통합 이전의 입석리 경계가 부정확함.

3) 1938년 가평군 행정구역

1938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8호>에 의해 면의 명칭 및 구역 일부가 개정되었다. 군내면이 가평면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1938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가평면, 상면, 하면, 외서면, 남면, 북면이었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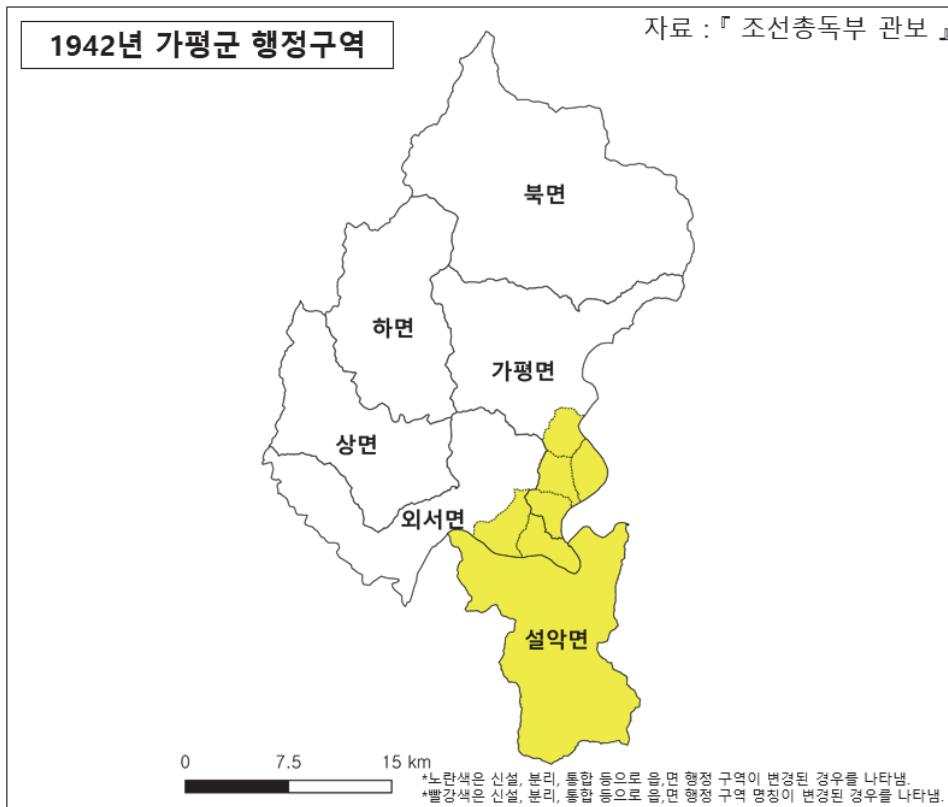


[그림 31] 1938년 가평군 행정구역

4) 1942년 가평군 행정구역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42호〉와 1942년 10월 1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26호〉에 따라 청평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남면 호명리(虎鳴里)·고성리(高城里)는 외서면에, 북장리(福長里)·산유리(山柳里)·금대리(金垔里)·이화리(梨花里)는 가평면에 편입되었고, 남면은 폐지되었다. 또한 양평군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에 편입되었다.⁸⁹⁾

따라서 1942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6면(가평면, 상면, 하면, 외서면, 북면, 설악면) 61리였다(그림 32).



[그림 32] 1942년 가평군 행정구역

89) 설악면 내 14개의 리가 가평군에 편입됨.

3. 광복 ~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1) 1963년 가평군 행정구역

1963년 1월 1일에 시행된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6호)에 따라 구운천 일대의 법정리⁹⁰⁾가 병합되어 양주군 수동면이 신설되었다. 면내 주변 마을과의 교통이 불편했던 가평군 외서면 내방리(內坊里), 외방리(外坊里), 입석리(立石里)가 수동면에 속했다. 따라서 1963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6면 58개리가 되었다(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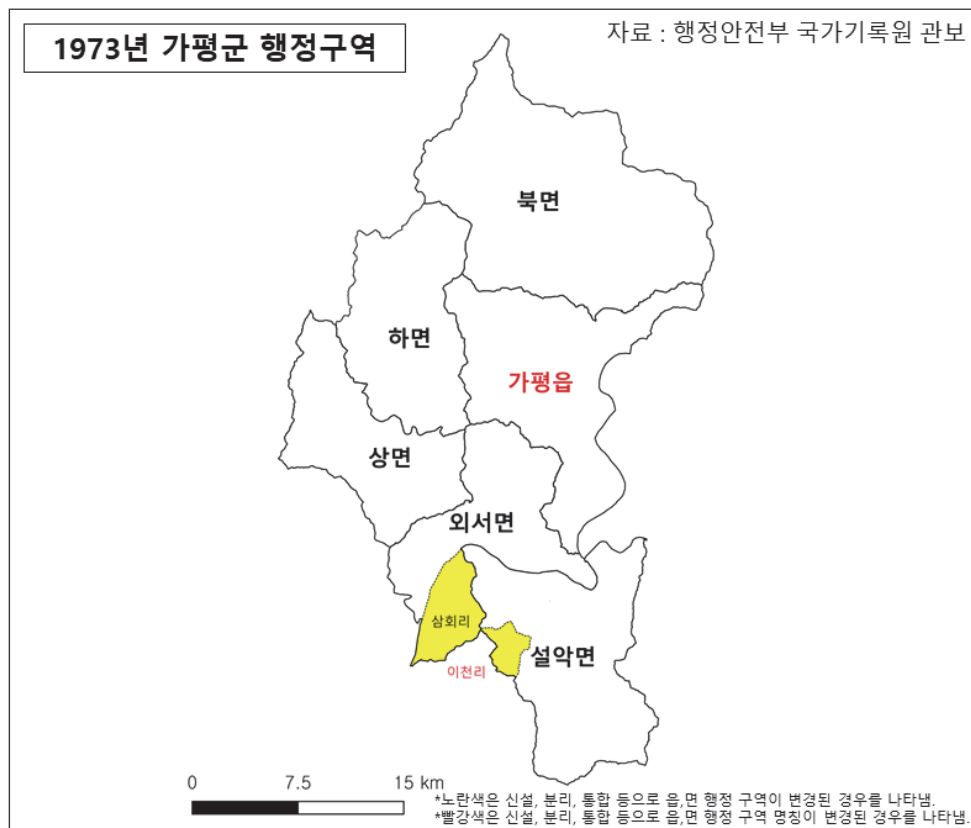
[그림 33] 1963년 가평군 행정구역

90) 양주군 진접면 수산리, 화도면 지둔리, 운수리, 송천리, 가평군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

2) 1973년 가평군 행정구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에 편입되었다.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 설악면에 편입되면서 이천리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7월 1일에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542호)>가 시행되었다. 1973년 7월 1일 시행에 시행된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73. 7. 1. 시행 대통령령 제 6542호)에 따라 가평면이 가평읍(加平邑)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1973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6면(가평읍, 상면, 하면, 외서면, 북면, 설악면) 60리였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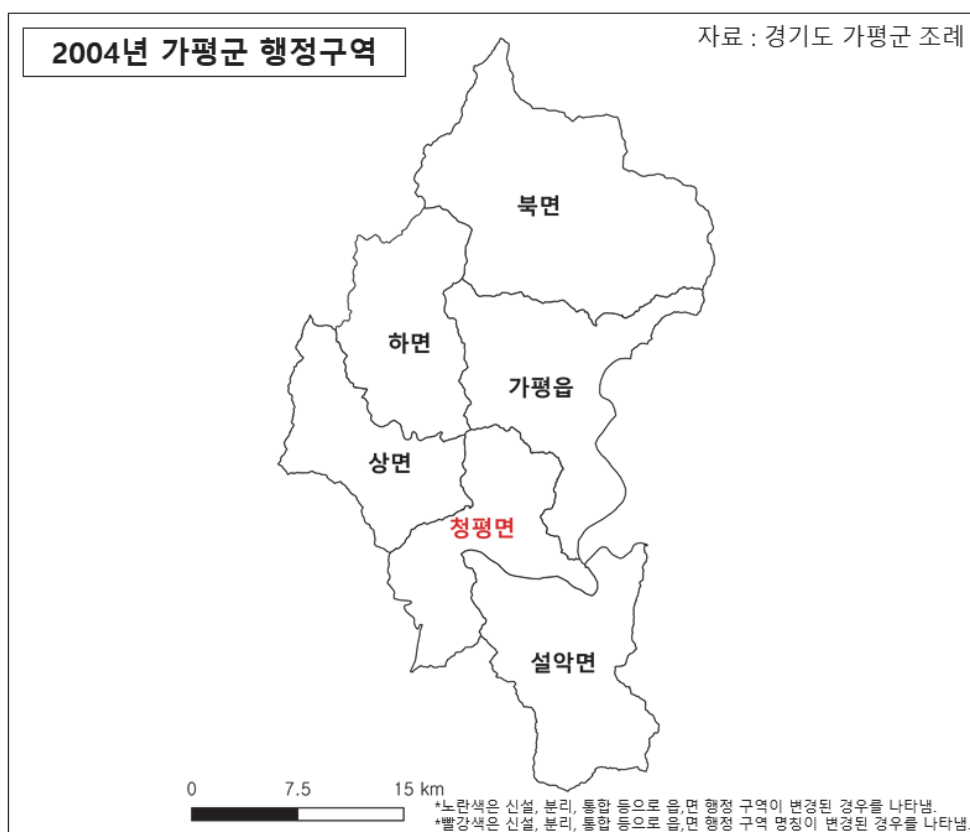


[그림 34] 1973년 가평군 행정구역

3) 2004년 가평군 행정구역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인 청평(淸平)을 면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외서면이 청평면(淸平面)으로 개칭되었고, 2004년 12월 1일에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04. 11. 25.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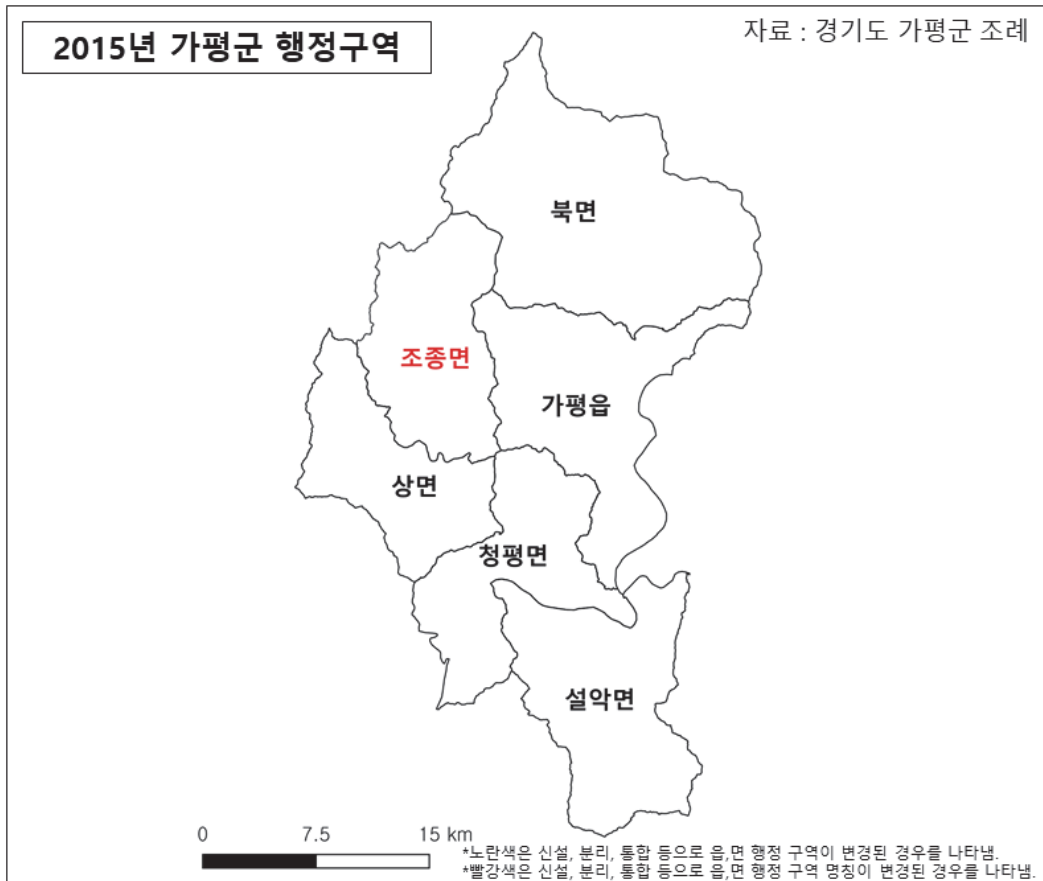
따라서 2004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가평읍, 상면, 하면, 청평면, 북면, 설악면이었다(그림 35).



[그림 35] 2004년 가평군 행정구역

4) 2015년 가평군 행정구역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하면이 조종면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에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892호로 개정된 것);가평군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2015 .12. 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558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었다. 2015년 가평군 행정구역은 가평읍, 상면, 조종면, 청평면, 북면, 설악면이었다(그림 36).



[그림 36] 2015년 가평군 행정구역

6)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2021년 현재 가평군은 1읍(가평읍), 5면(상면, 조종면, 청평면, 북면, 설악면), 61법정리(읍내리, 대곡리, 달전리, 하색리, 상색리, 두밀리, 경반리, 승안리, 마장리, 개곡리, 이화리, 산유리, 북장리, 금대리/현리, 대보리, 신상리, 운악리, 상판리, 신하리, 마일리/연하리, 향사리, 행현리, 임초리, 덕현리, 태봉리, 원흥리, 상동리, 율길리, 봉수리/청평리, 상천리, 하천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목동리, 소법리, 화악리, 도대리, 적목리, 백둔리, 제령리, 이곡리/신천리, 선촌리, 회곡리, 사룡리, 송산리, 미사리, 위곡리, 창의리, 엄소리, 설곡리, 묵안리, 가일리, 방일리, 천안리, 이천리), 126행정리가 있다(그림 38).



[그림 38] 2021년 가평군 행정구역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2021년까지 사료를 조사하여 경기도 가평군의 지명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평군의 시대별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지도로 가시화하였다.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에 나타나는 지역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시대 가평군 지명은 당대 사람들의 지리인식 체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산인 화악산과 주산인 수정봉, 안산인 보납산이 계속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풍수지리사상이 지역주민의 삶에 지리인식체계에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둘째, 조선 시대 가평군은 읍치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방위에 따라 면리의 지명이 결정되었다. 조종현이 조종면으로 되고, 읍치가 위치한 군내면과 서면, 남면, 북면으로 구성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촌락의 분화로 면리제가 정비되었다. 이때 가평군은 인구가 가장 많은 조종면이 먼저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분리되었고, 그 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서면이 내서면과 외서면으로 분리되었으며, 1899년 이전에 북면이 하북면과 상북면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18세기에 5면 35동·리에서 19세기 후반에는 8면 86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셋째, 19세기 후반에 제 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가평군의 존폐가 결정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평군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1895년 5월 26일에 가평군은 23부(府) 중 한성부에 군(郡)이었다가, 동년 7월 19일 포천군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1년 뒤인 1896년에 23부제의 지방행정구역이 13도제로 개편되면서 가평군은 포천군에서 다시 경기도 가평군으로 분리되었다.

넷째, 일제강점기인 1914년과 1915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평군의 많은 면과 동·리가 통합되었다. 이때 영평군 이동면 적목리가 가평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이후 법정리는 이때 정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개통된 경춘선과 1943년에 완공된 청평댐은 가평군의 행정구역과 지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춘선 개통으로 외서면 마산과 내서면 빛고개(色峴)에 호명굴과 빛고개굴이 만들어졌다.

청평댐 건설로 댐 상류에 위치한 남면 대부분과 양평군 설악면 일부가 수몰되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1942년 10월 1일에 대부분 수몰된 남면은 가평면과 외서면에 나누어 편입되고 폐지되었다.

또한, 댐 건설로 북한강을 통해 서울까지 이어지는 수로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사람과 자동차가 오갈 수 있는 청평댐 ‘공도교’가 건설되었다. 양평군 설악면은 가평군 외서면과 육로가 연결되어, 1942년 10월 1일에 양평군 설악면이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여섯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구역과 지명 개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변경하거나, 일본식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지명은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자연적, 인문·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지명을 개편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

여 가평군의 행정구역 변천 과정을 지도화하였다. 2021년 법정리 경계를 기준으로 18세기부터 현재까지 가평군의 행정구역을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변경을 시기별로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계점으로는 2021년 법정리 경계를 기준으로 복원하여 ‘1915년 법정리 개정’ 이전의 가평군 동·리의 경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평군 지명의 시기별 지명 변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지명연구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역지와 지리지에 나타난 가평군 지명 오류를 수정하였다. 광복 이후, 지명연구는 전국 단위 혹은 도 단위로 진행되어 시대별로 대표되는 고지도와 지리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료를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선행 연구의 오류가 후속 연구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과 변화에 대한 지명 연구가 이루어져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지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가평군의 지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유 지명 유래 등 연구 범위를 다양한 주제와 연계하고 확장하여 가평군 지명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加平郡邑誌』

『加平郡邑誌成冊』

『加平邑誌(京畿道)』

『京畿邑誌』

『京畿誌』

『高麗史』 국역

『茶山詩文集』 국역

『三國史記』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국역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국역

『朝鮮地誌資料』

『朝鮮總督府官報』

『世宗實錄地理志』 국역

『戶口總數』

가평군, 1991, 加平郡誌.

가평군, 2006, 加平郡誌.

가평문화원, 1986, 加平郡鄉土誌.

가평문화원, 2000, 가평의 지명과 유래.

- 가평문화원, 2001, 가평의 지명과 유래 하.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4, 경기도사.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 京畿道史資料集 - 日帝强占期篇Ⅰ.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 京畿道史資料集 - 日帝强占期篇Ⅲ.
-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 국토지리정보원, 2020, 대한민국국가지도집Ⅱ 2020.
- 강호철, 2015, 華岳山人의 加平郡誌 사람들의 땅이야기, 강길산.
- 이기봉,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구소.
- 신현정, 1998, 가평의 사랑방 이야기, 가평문화원.
- 신현정, 1994, 가평의 자연과 역사, 피플뱅크.
- 이사벨라 버드 비숍, 1996,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살림.
- 이승중, 유희숙, 1994, 地方化時代의 住民參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
- 화악산인, 2004, 가평군 歷史 이야기, 향토문화연구회.

2. 논문

- 강승삼, 1978, "忠北의 地名考.", 上黨地理 2, pp.11-27.
- 권선정, 2011, "'지명'과 '길'로 읽는 근대도시 대전의 형성과 변천 -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5(3), pp. 475-492.
- 김순배, 2004, "地名 變遷의 地域的 要因 : 16세기 이후 大田 지방의 漢字

- 地名을 사례로”, 문화 역사 지리 16(3), pp.65-85.
-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철, 2019,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지명학 30, pp.111-155.
- 신현웅, 1981, “忠北 報恩郡 村落名의 類型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 양보경,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 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지리학논총 7, pp.29-52.
- 양보경,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pp.84-121.
- 양보경, 정치영, 2006,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회지 18(3), pp73-90.
- 양보경, 홍금수, 2002, “양평지방 전통취락의 입지와 유형”, 응용지리 23, pp.63-114.
- 양윤정, 2013,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pp.1-30.
- 오창면, 202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理名과 변천”, 한국지명학회 33, pp.381-406
- 이근열, 1999, “지명의 변화 유형과 원인 - 양산 지명을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9, pp.111-128.
- 이성학, 1975, “韓國의 地名에 關한 研究 - 主로 慶尙北道의 里洞名에 對한 歷史地理學的 考察.-” 경북대학교 논문집 20, pp.53-66.
- 이혜은, 2000, “地名을 통해 나타난 地域文化”, 녹우연구논집 39, pp.99-117.
- 전경숙, 1978, “忠淸北道 地名의 類型分布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지도

《加平郡地圖》

《廣輿圖》

《輿地圖》

《地乘》

《海東地圖》

《1963년 1:50,000 지형도》

4. 사이트

가평군 상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s://www.gp.go.kr/sang/index.do>

가평군 조종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s://www.gp.go.kr/ha/index.do>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750>

경기농정 통합 연인산도립공원.

<http://farm.gg.go.kr/sigt/116>

경기도 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go.kr/lxportal/?menuno=267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디지털가평문화대전.

<http://gapyeong.grandculture.net/gapyeong>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2010000.do>

산림청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https://www.forest.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snu.ac.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보.

<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5. 기사

“10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가평 ‘조종면’ 선포식”, 경기일보, 2015. 12. 1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95285>

“석봉(石峯) 한호(韓濩), 가평에 꽃피다.”, 가평소식지, 2017년 3월호, p.7.

“일본인 쓴 ‘춘천찬가’... 아픔의 역사 속 빛나는 절경”, 강원도민일보,

2012.02.27.,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784>.

ABSTRACT

The Changes of Place Nam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apyeong-gun, Gyeonggi-do

Kang Jihyeo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lace names have been researched into not only by geographers but also by many other field scholars, and hence, much performances of the researches have been accumulated. So far, Korea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many other institutions and research groups have studied the place names in Korea, accumulating much data about them. In most cases, the researches into place names have been conducted at the whole nation, provinces or other wide regions. However, if the place names should be researched into at the city or village rather than a wider region, the results would be more specific and practical. Moreo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tents contained in the time-honored maps and the modern ones in consideration of the whole history of Korea,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terpret the place names in consideration of their natural environmental and humanit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Gapyeong-gun (加平郡) of Gyeonggi-do (京畿道) was an agriculture society under the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during Joseon (朝鮮) dynasty.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the natural and human and social environments of Gapyeong-gun would change much due to the construction of such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as railway and dam. Specifically, Nam-myeon (南面) was abolished, while Seorak-myeon (雪岳面) was incorporated, while Homyeong tunnel (虎鳴窟) and Cheongpyeong lake (淸平湖) were created anew. Recently, some place names were created,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the typicality of the region due to the decentralization of nation's administration and the increase of people's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ic data of Gapyeong-gun for the period from late Joseon dynasty through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to present (2021), and thereby, arrange the place names of the county, and thereupon, construct a database about period-wis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lace names chang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can be known that the place names of Gapyeong-gun during Joseon dynasty reflected people's geographic recognition. In addition, the names of 'Myeon Ri' (面里)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bearings centered about 'Eup government' (邑治). By the late 18th century, 'Myeon Ri system' (面里制) would be rearranged due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segmentation of the villages, and thus, Jojong-myeon (朝宗面) would be divided into Jojongsang-myeon (朝宗上面) and Jojongha-myeon (朝宗下面), Seo-myeon (西面) into Naeseo-myeon (內西

面) and Oiseo-myeon (外西面), and Buk-myeon (北面) would be divided into Habuk-myeon (下北面) and Sangbuk-myeon (上北面). By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 2nd Gabo Reform (甲午改革) was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ould be adjusted drastically, and Gapyeong-gun was not an exception. In 1914 and 1915 or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ould be adjusted again. As a result, many myeons (面) and lis (里) would be integrated. Moreover, as GyeongChun railway (京春線) was opened in 1939 and Cheongpyeong dam (清平-dam) was constructed in 1943, the administrative zones of Gapyeong-gun would be reshuffled only to facilitate the change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lace names. On Oct. 1, 1942, Nam-myeon (南面) would be split into Gapyeong-myeon (加平面) and Oiseo-myeon, and thus, it was abolished. On the other hand, Seorak-myeon (雪岳面) of Yangpyeong-gun (楊平郡) would be incorporated into Gyeong-gun. In 1991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launched, the nam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laces that had been uniformly chan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be changed according to residents' opinions. Currently in many local autonomous cities and counties, residents' opinions are collected to change the place names representing their statuses or change the Japanese-style place names into our original on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used the GIS to map the chang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Gapyeong-gun by period.

This study may well have provided for some basic materials

databased regarding the changes of places in Gapyeong-gu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that will research into the changes of the place names of Gapyeong-gun systematically and exp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encompassing the origins of the place names. Then, the researches into the place names of Gapyeong-gun would develop in both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addition, this study corrected the place names of Gapyeong-gun shown in the local or geographic map used as basic database of the researches into the place names. In Korea, the researches into place names have been conducted nation-wide or province-wide, in reference to the time-honored and geographic maps. Hence, the data about the unique or original characteristics of regions could not well be reflected, and such errors tend to remain intact in the follow-up studies. In this regard, future studies are expected to research into other regions, being conscious of the actual status and changes of their place names.

Key words: place name, place name database, Administrative Districts, HGIS, *Gapyeong County, Gyeonggi Province*